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 우리말 우리얼

제 118 호 2021년 8월 15일

## ◀ 차례 ▶

<한글 살리고 빛내기> 한글과 한자가 피 터지게 싸우는 문자전쟁 시작 리대로	2
<한글 살리고 빛내기> 한글전용 반대, 한자혼용 뒤에는 일본이 있다 리대로	7
<느낀 글> 코로나 예방주사 이정우	14
<느낀 글> 국립국어원이 만드는 우리 말 조연년	16
<우리말 동시> 시루골 권순채	20
<우리말 동시> 다 같은 사람 김정원	24
한자말과 서양말과 우리 말 이오덕	27
들풀을 먹으면서 이오덕	28
우리 말 질서를 망가뜨리는 성서 이성인	31
한겨레 말꽃 최종규	34
말 좀 생각해 본다면 최종규	40
우리말 속의 꽃 '속담' 김 화	45
우두머리의 조건 (1) 미승우	56
아마존 홍석화	72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조연년	83
알립니다	96

**패낸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전자우편 주소**: 25duk@naver.com,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 한글 살리고 빛내기 >

## 한글과 한자가 피 터지게 싸우는 문자전쟁 시작

리대로 우리말겨레모임 공동대표, 한글이름연구소 소장,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한국어인공지능학회 회장

### 한글전용 반대하는 모임인 ‘어문회’가 나타난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부터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 나는 기뻐고 앞으로 그 정책이 잘 시행될 것이라 믿었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 국어운동대학생회는 정부가 그 발표를 한 뒤 허용 지도교수를 모시고 북한산으로 축하 들놀이까지 갔었다. 그리고 나는 흥기분한 마음으로 1970년에 군에 입대를 했고, 1972년 전역 세 달을 앞두고 함께 국어운동을 한 이봉원 군에게 나는 제대를 하면 농촌운동에 더 힘쓸 것임을 밝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했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보니 세상은 내 생각과 달랐다.

국회가 의원 이름패와 휘장을 한글로 바꾸고 군대 전우신문이 한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신문도 한글전용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 때 조선어학회 회원으로서 한글 맞춤법도 만들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까지 치른 서울대 국문과 이희승 교수가 1969년 말에 ‘한국어문교육연구회’라는 한글전용 반대 운동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군사정부 2인자라는 김종필 총리가 한글전용 정책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들도 한글전용을 하지 않고 한자혼용하지는 이들을 돕고 있었다. 거기다가 1970년에 한글전용

운동에 앞장섰던 최현배 한글학회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국어운동대학생회 지도교수였던 허웅 교수가 한글학회 회장으로 있었다. 북한은 광복 뒤부터 한글전용을 하고 신문도 한글로 냈기에 우리도 그럴 줄 알았다.



▲ 1968년 정부가 한글전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어운동대학생회 회원들은 허웅 지도교수를 모시고 북한산에 축하 들놀이를 했을 때 사진(왼쪽). 오른쪽부터 이대모, 허웅 교수, 여학생 건너 서울대 이봉원 회장. 1970년 학훈단 소위 입관식 때 나와 이봉원 뜻밖 사진(오른쪽). © 리대모

그러나 서울대 이희승 교수와 그 제자 남광우 교수가 한자혼용 운동에 나서니 많은 서울대 출신 학자들과 국어 선생들이 그들을 따르고, 군사정부 2인자인 김종필 총리와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강력하게 한글전용을 반대하고 나서니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한자혼용에 길든 공무원들이 그들을 따르고 좋아했다. 그리고 이희승 교수와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된 한자혼용 세력은 “이름씨, 그림씨”처럼 우리 토박이말로 만들어 쓰던 말본 용어를 못 쓰게 하고 “명사, 형용사” 같은 일본 한자말로 쓰게 하더니 광복 뒤부터 교과서에 살려서 쓰던 “쑥돌, 흰핏돌” 같은 우리 토박이말을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화강암, 백혈구” 같은 일본 한자말로 바꾸고 교과서에 일본 말투 글이 늘어났다. 그리고 국회는 1973년에 한글로 바꾸었던 국회 보람과 국회의원 이름패를 한자로 다시 바꾸

었다.



▲ 한글전용을 반대한 이회승 교수와 그 제자인 남광우, 김종필 국무총리와 민관식 문교부장관. © 리대로

그런데 나는 한글전용 정책이 잘 시행될 줄 생각하고 1972년 6월 군대 전역을 하고 국어운동대학생회 지도교수였던 허웅 한글학회 회장을 인사차 찾아 뵙고 “저는 앞으로 농촌에 들어가 농촌운동에 힘쓰는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니 허웅 회장은 “너희 젊은 대학생들이 애써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펴기로 했으나 그 반대 세력이 뒤집어 업고 있다.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고 한글운동을 더 힘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현배 회장은 일제 때부터 한글운동을 한 분이었으나 투쟁 경험이 적고 젊은 허웅 교수는 일본식 한자혼용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막중한 한글학회 회장을 맡고 몹시 힘들어했다.

그래서 우리 국어운동학생회 출신들이 다시 모여서 지도교수였던 허웅 한글학회 회장을 도와 한자혼용 세력들과 싸우기로 하고 1972년 한글날에 전국 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를 결성했는데 내가 회장이 되었다. 그래서 농촌에 들어가는 것을 미루고 한글과 한자 싸움판 선봉에 서게 된 것이 내 일생 과업이

된다. 광복 뒤 미국 군정 때부터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고 한글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한민국 문교부까지 이어온 것은 최현배 교수가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일하면서 뿌리가 내린 것인데 갑자기 최현배 한글학회 회장이 세상을 뜨고 한글전용을 반대하는 김종필이 국무총리가 되어 설치니 문교부도 차츰차츰 한자혼용 분위기로 바뀐다.

그때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중, 고등학교 필수교육 한자 1800자를 정하면서 한자 교육을 강조하고 한글전용 분위기를 혼돈다. 그리고 박정희 유신정치를 반대하던 김종필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가 되니 8대 국회 때 한글로 바꾸었던 국회의원 보람과 이름패를 다시 한자로 바꾼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이 없고 사회 곳곳에서 한글전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날뛰니 광복 뒤 우리말을 살려서 한글로 적자는 분위기는 식고 시들해진다. 한글이 태어날 때부터 한글을 못살게 구는 자들이 있었고 광복 뒤부터 일본식 한자말을 한자로 적자는 자들이 있었지만 한글을 살려서 쓰는 것을 반대하는 모임까지 만들어 터놓고 한글에 저항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그러니 문자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한글과 한자 싸움이 치열하게 된다. 서울대 국문과 출신 국어학자들과 성균관 유학 세력에다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들 언론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한글만 쓰기를 가로막고 김종필 같은 친일 정치 세력이 그들을 밀어주니 한글전용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몸을 사리고 움츠린다. 그래도 한글학회와 젊은 국어운동대학생회만 정부에 건의하고 한글을 지키고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친다. 나는 정부가 1970년부터 한글전용을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자혼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회장 이대로) 이름으로 9대 국회 때 국회 휘장과 이름패를 한자로 되돌리면 안 된다고 건의했으나 듣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 의원들 도움을 받아 한글국회를 만들려고 애썼다.



▲ 1973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회장 이대로)는 사법부와 행정부 회장은 한글이며 한글전용법이 있는데 국가가 다시 회장을 한자로 되돌리면 안 된다고 건의하고 받은 국회 회신(왼쪽).      © 이대로

그 결과 19대 국회 때 노회찬 의원(<https://omychans.tistory.com/374>)과 함께 그 일을 마무리했다. 그렇듯이 40여 년 동안 1968년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다가 안 한 일들인 공문서와 교과서, 신문이 한글전용을 하게 만들었고, 국회 회장과 국회의원 가슴에 다는 보람과 국회의원 이름패를 한글로 바꾸게 하고, 한글나라를 만들려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고,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게 하고, 한글박물관을 세우게 하고, 이오덕, 김수업, 김경희 님들과 함께 우리말

살리는겨레모임을 만들고 우리말을 살리고 지키려고 오늘까지 친일 반민족 사대주의자들과 싸운 일들에 내 일생을 바치게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함께 하고 도와준 분들을 고마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밝혀 쓸 것이다.

< 한글 살리고 빛내기 >

## 한글전용 반대, 한자혼용 뒤에는 일본이 있다

리대로 우리말겨레모임 공동대표, 한글이름연구소 소장,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한국어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종필, 이회승이 한글을 못살게 군 까닭이 무엇일까?**

광복이 되고 미국 군정 때부터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고 공문서를 썼다. 그리고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겨레를 사랑하는 분들은 일본이 못쓰게 한 우리 토박이말을 살려서 쓰고 일본 한자말을 쓰지 말자고 했다. 최현배 장지영이 미국 군정청에 들어가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자고 할 때에 경성제대 출신 이승녕과 조윤제 교수, 고려대 현상윤 총장들이 반대했다. 그래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자는 명분과 분위기가 강했기에 공문서와 교과서를 한글로 썼다. 그때만 해도 경성제대 나온 서울대 이회승 교수는 한글학회 이사로서 한글만 쓰자는 모임 간부로 참여했다. 그런데 1969년에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 이회승)’란 모임 대표를 맡고 한글과 한글학회에 등을 돌렸다. 왜 그랬을까?

제40대 (1956.06.11. ~ 1959.05.24.)

△이사장: 최 현배. △서무부 이사: 권 승욱 [장 신경(~1957.11)]. △경리부 이사: 유 제한. △교양부 이사: 이 희승 [한 중수]. △출판부 이사: 이 승녕 [김 민수(~1957.03)]. △도서부 이사: 정 인승 [이 강로]. △외사부 이사: 한 갑수 [이 강로].  
△명예이사: 장 지영, 김 윤경.

제41대 (1959.05.25. ~ 1962.06.04.)

△이사장: 최 현배. △서무부 이사: 정 인승 [최 상덕→1959.12.24. 유 제한]. △경리부 이사: 이 희승 →1960.05.30. 김 윤경 [최 창식]. △교양부 이사: 김 형규 [한 중수]. △출

제42대 (1962.06.05. ~ 1965.04.10.)

△이사장: 최 현배. △서무부 이사: 정 인승 [최 창식]. △경리부 이사: 김 윤경 [최 창식]. △교양부 이사: 장 지영 [한 중수]. △출판부 이사: 허 용 [최 창식]. △도서부 이사: 이 탁 [유 제한]. △외사부 이사: 이 희승 [최 상덕].  
△감사: 1963.05.16. 까지 이 호성, 이 세정, 박 장해. 이희승

▲ 이희승 교수는 한글학회 제40대부터 제42대까지 이사였으며 한자혼용 주장자인 이승녕 교수도 40대 한글학회 이사, 김형규 교수도 41대 한글학회 이사를 지냈다. © 리대로

이희승은 일제 때 조선어학회(한글학회) 간사장까지 지내고 한글 맞춤법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섰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까지 치렀고 대한민국 때에 한글학회 이사로 계속 활동했다. 그리고 1964년 문교부가 한자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글학회가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했을 때에도 그는 학회 이사로서 반대 투쟁위원이었다. 그런데 그가 왜 1969년부터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는 모임 대표까지 맡았다. 광복 뒤 미국 군정 때 교과서를 한글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던 이승녕 교수도 대한민국 때에 한글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는 모임까지 조직해서 가로막지는 않았었다. 이희승도 경성제대 나온 이로서 일본식 한자혼용을 좋아했지만 숨기고 있다가 한글전용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하니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



본디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통치 앞잡이 양성소로서 일본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우리 겨레를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런 일본 앞잡이 교육을 받은 경성제대를 나온 이승녕과 조윤제 등이 광복 뒤 한글로 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에 반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친일 정치인 김종필이 일본과 한일회담을 강행하고 앞으로 일본과 가깝게 지낼 거 같으니 독립협회에 가담했던 이완용이 일본 앞잡이가 되었는데 이회승도 일본이 좋아하고 바라는 쪽으로 변절한 거로 보인다. 그런 마음이 한국어문교육연구회를 만든 취지 글에 “1967년경부터 1970년까지의 갑작스런 한글전용 확대와 교과서 한자배제의 한글전용정책을 저지하고자 1969년 이회승(李熙昇)·이상은(李相殷)·오지호(吳之湖) 등 181명의 저명인사 발기(發起)로 발족하고 이회승이 회장을 맡았다.”라고 잘 나타나 있다.

## 2.2. 1963~1965년 — 교과서에서의 '한자 사용 확대' 반대 투쟁

2.2.1. 제2차 교육과정과 한자 사용 확대: 그러나 1963년에 들어 문교부의 교육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1963년 2월 15일에 공포—이를 흔히 제2차 교육과정이라 함—하였는데, 그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과 4학년 읽기 영역의 '목표'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글과, 한자·숫자·로마자와의 구별을 알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었다.

2.2.2. 한글학회의 반대 운동: 한글학회에서는 1964년 11월 15일의 정기총회에서 '교과서 한자 사용 확대' 방침을 저지할 운동을 벌일 것과 일반 사회에 대하여 한자 사용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들을 풀어 주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이사 전원—최 현배, 김 윤경, 정 인승, 장 지영, 이 회승, 이 탁, 허 용(7명)—과 회원 7명—장 하일, 권 승욱, 박 장해, 금 수현, 한 갑수, 김 선기, 조 석기—으로 그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이회승도 1964년 한글학회의 “교과서 한자 병기확대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이었다. © 리대로

이희승은 그렇지 않아도 최현배가 미국 군정 때부터 국어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같은 경성제대 출신인 이승녕, 김형규 들도 한글학회 이사였으며, 이희승은 정부가 1965년부터 한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에 한글학회가 그 반대 투쟁위원을 조직했는데 그 투쟁위원 명단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1967년에 국어운동대학생회가 나타나 한글전용을 외치니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전용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를 다닌 군사정권 2인자 김종필과 손잡고 일본식 한자혼용에 나서서 최현배, 김윤경 등 한글전용 주장자들을 누를 기회로 본 거 같다. 그 당시만 해도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이라는 이들이 거의 모두 일본 식민지 한자혼용 교육에 길든 이들이었으니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희승은 1968년에 일제 강점기 군수를 한 이항녕, 일제 강점기 조선통독부 직속 기구인 조선사편수회에서 일한 이병도와 신석호, 일제 때 진단 학회를 조직한 김삼기, 일본이 세운 괴뢰정권인 만주국 협화회의의 위원을 지낸 이선근 들들 친일 성향 인사들과 ‘현정회’란 단군을 섬기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민정신 교육을 한다고 만든 이 단체는 이희승과 친일 인사들이 만든 단체여서인지 단군시대는 한자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는데 한자단체보다도 더 한문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근래에 만든 사설단체이면서 조선시대 사직단 구역에 집을 짓고 ‘단군정전’이란 문패를 달아서인지 단군숭배 단체 대표 단체 행세를 하고 있다. 저명인사인 이희승과 경성제대 출신들의 명성을 내세워 문화재청과 서울시 지원을 받아 행사를 하니 정치인들이 대표 민족운동단체로 여기고 이들 행사에 참여하는 거 같다.

그런데 김종필은 국어학자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일본식 한자혼용에 앞장선 것일까? 그는 일본 식민지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

든 세대로서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를 다녔고 그의 아버지 김상배는 일제 때 부여에서 면장을 지낸 친일 성향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굴욕스럽게 한일회담을 체결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일본과 무슨 밀약이 있거나 일본에 잘 보여서 제 이익을 챙기려고 한자혼용에 광분했던 것으로 의심이 간다. 아니면 서울대 다닐 때에 경성제대 나온 친일 교수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가 왜 친일 성향 학자들과 함께 일본식 한자혼용에 나섰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 왼쪽부터 후쿠자와와 그의 제자 이노우에, 유길준과 그가 쓴 한자혼용으로 쓴 서유견문 표지. © 리대로

그런데 본래 한자혼용은 조선 말기 일본 침략자들이 이 땅에 심어 놓은 것이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고 오늘날 일본 1만 엔짜리 돈에 얼굴까지 담긴 정한론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인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1883년 조선 외무아문협판 고문으로 왔을 때에 한성순보 창간에 참여했다가 1884년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1886년에 다시 들어와 한성주보 편집주사가 되어 한자혼용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한자혼용이 시작했다. 그가 한자혼용으로 신문을 만든 것이 그의 스승인 후쿠자와가 조선이 중국처럼 한문전용이 아닌 일본처럼 한자혼용에 길들여야 한다고 꾸짖었고, 그는 장차 조선을 통치하기 좋게 하려고 한성주보를 한자혼용으로 만들었다고 털어

났다는 설이 있다.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 제자인 유길준이 1895년에 한자혼용으로 ‘서유견문’이란 책을 낸 것도 일본 영향이며, 내가 동국대 국어운동학생회를 만들고 활동을 할 때에 이완용의 손자라고 자칭하던 국문과 이병주 교수가 국어운동 학생회 활동을 방해한 일이 있는데 이 또한 일본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재도(국어사전 전문가) 선생이 내가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로 있을 때 나와 한 방에서 국립국어원이 낸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일본말을 조사 했는데 그때 그 분이 “내가 소년조선 편집을 하던 1970년대 일본에서 온 일본 관리가 우리나라 신문사 편집인들을 식당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신문이 한자혼용을 해서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자혼용하자는 ‘어문회’ 남광우 교수가 함께 있었다.”면서 한자혼용 뒤에는 일본이 있다고 강조한 일이 있다.

정재도(한말글연구회 회장) 선생은 일제 때 광주사범을 나와서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광복 뒤 이은상 선생이 한글전용으로 호남신문을 만들면서 그 신문 편집 일을 해달라고 불러서 학교 선생을 그만두었고, 그 뒤 한글학회에서 사전 만드는 일도 했다. 정재도 선생은 1961년 이희승이 일본 사전을 보고 일본 한자말을 많이 넣어 만든 국어사전을 냈는데 그 사전을 근거로 남광우 교수들이 우리말은 70%가 한자말이라고 주장하며 한자혼용과 한자교육 확대를 주장했고 그때부터 이희승은 최현배 말본과 대항하고 김종필 5.16 세력을 등에 업고 국어정책 패권을 잡으려고 나섰다는 이야기 들들 이희승과 남광우 교수와 있었던 증언을 내게 많이 해주셨다.

아무튼 나는 한자혼용하자는 이들 중에는 중국과 유교 영향을 받은 사대주

의자들도 있었지만 일본 강점기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이회승과 김종필 같은 일본식 한자혼용 주장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들 뒤에는 일본이 있다고 보았고 일본 강점기 잔재를 쓸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1992년 민족문제연구소 초창기 그 모임 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친일파 청산에 앞장을 선 일이 있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일제 식민지 교육 찌꺼기인 일본식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이들 말에 넘어가지 말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해서 한글을 빛내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한글이 태어나고 570년이 넘었는데도 한글을 안 쓰는 것은 그 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 한글회관에서 함께 있었던 정재도(왼쪽) 님과 나, 이회승이 만든 현정회의 서울 단군성전 모습. © 리대로

● 위 글은 인터넷신문 ‘대자보’에 쓴 글인데 오늘날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까지 하게 된 시초 일이라 여기 우리 모임 회보에 소개합니다.

## 코로나 예방주사

이정우 우리말겨레모임 공동대표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야만 했다. 지금 내 옆에는 기억자로 굵은 허리에 짙은 지팡이를 짚고 반 접은 운동화를 슬슬 끌면서 번호표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밀차에 실려 지팡이로 이리저리로 가라고 가리키는 할아버지가 있다. 저 멀리 어느 여자아이가 주사를 맞히기 위해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처음 기다리는 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서류 쓰는 표와 의사 기다리는 표를 다시 받고, 주사 맞고 15분 기다렸다 가는 표까지 모두 4번이나 새로운 표를 받는다. 여자아이는 겨우 움직이는 할머니를 붙잡고 체육관으로 와서 지금 두 번째 번호표 순서를 기다린다.

저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다.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몸뚱이를 겨우 움직여 가며 주사를 맞을까? 아니 몇 달이나 더 살아보겠다고?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고? 하루살이 하루를 살려고. 하루 더 사나 덜 사나 마찬가지인데……. 수천 년 간 살아온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저 앞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기가 막힌 연극이다. 참말로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 옆집 100살이 넘는 할아버지 내외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집 욕심 많던 영감이 죽고, 언덕 밭 할아버지는 마누라를 그렇게 때려 괴롭히더니 죽고, 자식 없고 부모 없어 부쳐 먹던 땅을 동네 공동재산으로 주고 죽은 할아버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쓴 총에 오발로 죽고, 너는 너 나는 나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도 싫어하던

영감 할머니 죽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할아버지 내외도 죽고, 그 아들까지 술로 살던 이도 죽고, 열 가구인데 누구도 다른 삶을 살다가 죽었다. 우리 동네 아랫담의 죽은 사람들은 연극이나 다름 게 없다. 그러나 농약 먹고 죽는 언덕밭 할아버지 역은 싫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싫든 좋든 타고 난다. 인생은 연극이 분명하다.

내가 아는 사람은 부인이 식물인간이 되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 먹을 것을 호스로 넣어준다. 먹을 것을 넣어주면서 10여 년을 한결같이 살아있지만 빌며 기다리는 남편은 화이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주저할까?

오늘은 2차 백신을 맞는 날인데 차에서 오줌을 누었는데도 20분 만에 또다시 변소에 가야 할 처지이다. 지난번에는 8시 반에 왔는데 번호표가 110번이였지만 지금은 7시 40분, 거의 한 시간 빨리 왔는데도 71번 번호표를 받았다. 대기 명수가 70명이나 밀렸는데 한 사람밖에 주사를 맞지 않은 채로 9시가 넘도록 긴 줄이 움직이지 않는다.

일찍 오지 말고 9시 지나서 오라고 할 것이지 한 시간 넘도록 예방주사를 놓지 않고 있다. 늙어 꼬부라져 죽을 나이가 되니까 아무렇게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한 시간이 넘도록 번호표를 받아서 플라스틱 걸상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또 오줌이 마려 변소를 갔다 왔다. 지나가는 안내 아가씨가 “의사 선생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서 다섯 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체육관에 가득 찼다. 젊은이들이라면 따지고 소란을 피울 터인데 거의 모두 80살이 넘는 노인들이다. 지팡이에, 밀차에, 반에 반 발자국씩 움직이는 노인들이라 소리 한번 지를 능력들이 없다.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생님을 기다리라고 자신들을 선생님이라고 칭한다. 선생은 무슨 선생인가. 이 많은 노인들을 체육관에 앉혀두고 아직도 안 나오는 것들이 선생이라고…….

노인들이 먼저 태어났으니 선생이지. 주사 놓을 줄 안다고 선생인가…….

< 느낀 글 >

## 국립국어원이 만드는 우리 말

조언년 우리말겨레모임 간사

한 달 전에 우스운 단어를 보고 이게 어떻게 우리 말이 되는가 싶어 한심했다. 바로 ‘먹요일’이라는 말이다. “살맛나는 먹요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이 광고문을 보면 먹요일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만한가? “오늘이 첫 먹요일이라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먹요일 기념으로 족발이나 시켜 먹을 까?” 이런 보기를 보여주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보통 사람들이 ‘치팅데이’라고 쓰는 말을 그렇게 고친 것이라나다. 살을 빼면서 먹고 싶은 것을 참아두었다가 날을 정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날이라나다. 살을 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말들을 써왔는가 싶었다. 이 기사를 보고 괜한 단어 하나를 알게 되어서 몹시 불쾌하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을 굳이 신경 써서 고칠 필요가 있는가 싶은 느낌이 들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날 그걸 먹는다고 하면 될 말을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새말이 만들어졌고, 그걸 국립국어원에서 다시 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나까지 보게 되었다. 전하는 능력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좀 더 이로운 소식으로 알려지면 좋겠다.

국립국어원이 이런 일을 앞장서 하면서 우리 말을 더 어지럽힌다. 찾아보니 그 앞에 발표한 ‘우동 = 가락국수’, ‘스마트폰 = 똑똑손전화’보다 이번에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사실 국립국어원이란 곳이 있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일 텐데 지금



까지 어떤 큰 활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국립국어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정말 우리 말에 관심이 있는 곳인지 알아보았다. 누리집에 들어가니 우리 말과 관련 있어 보이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었다. 먼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라며 공공기관이 쓴 외국어를 신고하는 곳과 <우리말 다듬기> 라는 곳이 있었다. 그 <우리말 다듬기>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보니까 외국말의 뜻을 풀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자체 투표로 뽑아 그렇게 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친 말을 다른 어떤 동의도 없이 우리 말이라고 한다. 말만 고치면 우리 말인가, 말이 돼야 우리 말이 될 것인데 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간단히 고쳐질 것이면 이오덕 선생님은 어째서 그렇게 많은 우리 말 책을 쓰고 잘못된 글말 법을 고심하여 온 것인가. 무슨 연구 자료가 있나 찾아보았지만 누리집에는 없었다. 그나마 우리 말을 불만한 곳은 <우리말샘>이란 사전뿐이었다.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김병기 기자가 낸 우리 말 신문기사를 읽어보았다. 그곳에 국립국어원의 이야기가 짧게 나와서 옮겨본다.

“최근 국립국어원이 만드는 새말은 백기완 선생님이 펴낸 ‘머선발 이야기’처럼 순도 100%의 토박이말이나 우리 고유어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적어도 공공언어는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공공기관과 언론매체의 외국어 표현을 국립국어원이 다듬은 ‘새말’로 한번 바꿔보자.

- 부산 해운대서 해변정화(비치코밍) 축제(페스티벌)
- 공정위·소비자원 ‘재택 경제 활동(홈노미) 제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참여하세요’ 하동군, 경남형 한 달 살이 시행
- 대구광역시, ‘대구 침장 특화산업 육성 숙면산업(슬리포노믹스) 선도한다’  
이 정도라면 우리말을 지키려고 일제 탄압에 맞섰던 구국의 결단을 요구하

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국립국어원이나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한글문화연대 등이 공무원과 기자들을 대신해 우리말을 다듬고 있다. 각 기관 누리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약간의 시간과 품단 들이면 된다. 외국어를 배척하지는 게 아니라 최소화 하면서 되도록 우리말로 고쳐 쓰자는 것이다.”

‘먹요일’과 ‘먹는날’은 같은 말이고 ‘토박이말’과 ‘고유어’도 같은 말인데 연달아 썼다. 또 맨 마지막에 글이 잘못되었다. 외국말은 반드시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김병기 기사는 언론인이라 함부로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 썼는가 싶다.

외국 말이 늘어나면서 우리 말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우리 모음이 아니고는 우리 말을 이야기할 곳도 없다. 나는 ‘우리 말’이라는 단어가 신문기사에 보이면 반가운 마음에 꼭 찾아들어가 본다. 그런데 이렇게 기껏해야 새말을 만들었다는 소식이면 마땅히 실망이 크다. 그것을 김병기 기자도 알고 이런 기사를 쓴 것 같다.

지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함부로 외국 말을 쓴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우리 말을 무시한다. 이 나라는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2019년에 발표한 인사혁신통계연보를 보면 모든 공무원이 1,085,849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702,100명인데 50명 중에 1명은 공무원인 셈이다.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도 공무원이 많으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공무원부터 우리 말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립국어원에서 새 우리 말 하나 만들어 방송이나 매체에 쓰도록 미는 것보다 다시 생겨나는 외국 말이 더 많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쓰면 너도 나도 쓰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먹요일’ 기사가 있고 한 달이 넘도록 국립국어원에서 어떤 이야기나 마무리가 없어서 점점 잊어간다. 사람들이 우리 말이 외국말로 바뀌었는지 마는지, 반대로 외국말이 우리 말로 바뀌었는지 마는지 얼마나 관심 없는지 알 수 있다.

작년에 한 방송에서 공공기관 이름을 맞추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를 보고 코리아 워터파크라 하고, EX(한국도로공사)를 보고 한국 인터넷 발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저게 뭐가 웃긴가 장난을 치는 것인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바깥에서 영어 간판을 보면 그 뜻이 뭔지 왜 저런 말을 달았는지 알아서 우리 말 회지에 실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소에 관심도 없는 표지판은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영어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로 써 있었으면 나처럼 찾아볼 일도 그 사람들처럼 부끄러울 일도 없을 것이다. 몰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럽게 되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참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름을 어렵게 짓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을 세우는 것 같다. 이번에 큰일을 저지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무슨 건설회사인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이었다. 처음 뉴스보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개인회사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자세히 듣지 않았다. 훗날 공무원들을 줄줄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서야 공공기관으로 제대로 알았다.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들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힘써 공무원들의 말을 고쳐 줘야할 국립국어원도 이대로 가다가는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줄여서 N.I.K.L로 바뀔 날도 멀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좋다는 추임새도 영어로 한다. 영어가 입에 배어서 친구들과 놀 때 영어 쓰는 사람 벌칙하기로 하면 백에 백은 다 걸린다. 이렇게 영어 없이 못사는 세상이 되었어도 이 시절이 다 지나면 영어 쓰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자 일본말 쓰는 사람이 없어졌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 말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고 아껴주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말 동시>

## 시루골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신라 토박이 마을》 시집에서.

큰시루 엮어 놓은 듯 시루봉  
콩시루 밑에 받친 듯 채다리골  
떡 찌는 채반 같다는 채반골  
해거름에 어슬렁거린다는 어시렁들  
국자같이 생긴 국작골  
왼쪽이라 왜피골 참나무 진보  
흙 달아 물 대는 흙달이

내 건너 산 아래  
동제 지내던 늙은 해나무  
옛땅 이름 물어보아도  
아무도 모르네  
대추나무 병 들어 씨 말랐나  
그래도 마당가에 오랜 대추나무 집  
주인 양반 어릴 때도 그 크기였다네  
시루골에 오랜 나무 있어  
반갑고도 반갑네

---

## 새들

중말서 시루골 돌아  
 들에 새로 들어선 새들마을  
 토박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백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네  
 이 골짜기에 누가 사람이 산다했는가  
 좁은 골짜기 농토도 적은데  
 그래도 옛날에 몇 집 살면서도  
 동계신으로 소나무 모셨는데  
 지금은 사라진지 오래로다  
 산의 맥 끝이라 맥락골  
 마을 앞 산봉우리라 말봉이  
 팔팔 소리 많은 팔팔이에  
 토박이 옛정은 묻어나네

---

## 구트란

물 굽이굽이 흘러  
 틀려 나간 곳에

절벽 위의 소나무  
 푸른 절개 지켜온  
 시인은 글을 짓고  
 묵객이 글을 쓰는 사이  
 학 한 마리 날아오르면  
 귀인들 냇을 잃고  
 더 아름다운 글을 짓네  
 흘러간 오랜 세월  
 물줄기 틀려감에  
 그곳에 자리 잡은 집  
 군데군데 뚫린 바위굴  
 옛 흔적 간직하고 있네

---

## 청두말

산비탈 가파른 마을  
 서나무 당수나무 아래  
 성혈 바위 있고 돌탑 있지만  
 옛처럼 비는 사람 없고  
 믿으려 하는 사람도 없네

말 매어 놀던 말매미

곡식되는 말 같이 생긴 말바우  
 물길 역할하는 물질도가리  
 물방아 있던 물방아거리  
 감나무 많은 강남골  
 높고 푸른 등대의 마을  
 이 마을에 맞는  
 골골이 이름 있어 좋아라

산머리 푸른 소나무  
 봉화대에 불 올리면  
 마을머리 푸른 연기 보고  
 오늘도 마음 놓이네

옛절 있는 구절에  
 채같이 생긴 채밭띠기에  
 두들에 홍두깨  
 이름 많기도 하네  
 이름 지어놓고 살던 사람  
 어디로 사라졌나

<우리말 동시>

## 다 같은 사람

김정원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꽃길》 동시집에서.

숲에서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다

가지가 부러진 나무도  
허리가 굽은 나무도  
줄기가 꺾인 나무도  
꽃이 피지 않은 나무도  
드러누운 나무도  
모두 나무라고 하지  
아무도 장애목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리를 저는 사람을  
팔을 잃은 사람을  
기어 다니는 사람을  
눈이 먼 사람을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굳이 구별해서 장애인이라고 부르나

내게 있는 것 하나가 네게 없어  
네가 장애인이라면



네게 있는 것 하나가 내게 없어  
 내가 장애인이라면  
 세상에 장애인 아닌 사람 누구인가

장애목이라고 하지 않듯이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 부르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인 것을

---

## 백일홍

새벽부터 줄기차게  
 가을비가 내립니다

올해도 양철대문 옆에  
 붉은 꽃이 곱게 핍니다

성당 종소리가  
 물안개처럼 깔리는  
 호젓한 고샅

방금 목욕한 꽃이  
 하하하 웃는 소리인 듯

떡비가 작은복을 칩니다  
동동 동동동 동

파란 우산 받쳐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병아리 병정들 소풍 가듯  
마냥 가볍습니다

---

## 늦가을 민들레꽃

부채 닳은 은행잎들 도톰히 쌓이는,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운동장 구석에  
민들레꽃 한 송이 수줍게 피었어요  
오늘 아침에 지각한 지수 같아요, 꼭

## 한자말과 서양말과 우리 말

이오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창립대표

며칠 전 어느 큰 책방에 들렀을 때다. 막 문간을 들어가는데, 내 앞에 네댓 살쯤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던 한 어머니가 말했다. “문구점에 가야지.” 그러자 아이가 물었다. “문구점이 뭐야?” 엄마가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방구점 말이야.”

‘문구점’을 모르는 아이라면 ‘문방구점’도 모를 것인데 그 아이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아이와 말을 할 때 아이의 눈과 귀로 사물을 보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아이가 물었을 때 “공책이나 연필 같은 것 파는 가게”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또 같은 한자말이라도 “학용품 가게”라고 해

도 좀 나왔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래서 한자말이라는 것이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세상 일을 알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고 짐이 된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자, 지금까지 쓰던 물건은 정리정돈을 잘 해 놓읍시다.”고 한다. 언제나 한자말 속에 사는 어른들은 이런 말밖에 할 줄을 몰라서 예사로 말하지만, 아이들 편에서 보면 쉽고 깨끗한 말이 얼마든지 있다. “자, 쓰던 가위나 풀이나 물감은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아요.” 하면 되는 것이다.

한자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60년대 초에 경북 상주 어느 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

모아 두었던 아이들의 시를 얼마 전에 책으로 엮어 내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때 나는 ‘방울나무’라고 할 줄 모르고 모두가 말하는 대로 ‘푸라타나스’라고 해서 시를 쓰게 했다. 그랬더니 한 반 64명 아이들이 쓴 것을 보니 푸라나스 · 푸나라스 · 플라타스…….

이렇게 열여섯 가지로 모두 다르게 써놓았다. 나무 이름 하나도 우리 말이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운동장 한쪽에 서 있는 저 나무가 ‘방울나무’라고 한 번만 가르쳐 주었더라도 틀리게 쓰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1999. 1. 7. 대한매일

## 들풀을 먹으면서

이오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창립대표

### <우리말우리얼>을 다시 내면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 임 선생이 길가의 풀을 이것저것 주섬주섬 뜯더니 어느새 한 움큼 뜯어 쥐고는, 오늘 낮에는 이걸로 먹어야겠어요 했다. 나는 들풀을 먹으면 좋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 저렇게 뜯어 먹어 본 적이 없기에

어떤 맛일까 궁금했다. 점심을 먹을 때 임 선생 하고 정우는 가위로 그 풀들을 잘라서 현미밥 위에 놓고 된장으로 비볐다. 정우 그릇에는 밥은 조금밖에 안 되고 온통 풀이었다. 나는 상추 잎에다가 잘라 놓은 그 들풀을 수북하게 놓고 밥을 싸 먹었다. 그런데 보기도 억세고 손을 대어도 거칠거칠하던

풀까지도 뜻밖에 아주 부드러웠고, 무엇보다도 향기와 맛이 있었다. 한데 넣어 싸 먹다가 풀 하나 하나를 따로 먹으면서 풀마다 가진 향기와 맛을 알아보기도 했다. 어떤 풀은 씹쌀했고, 어떤 풀은 뚱뚱했고, 어떤 풀은 새콤했고, 어떤 풀은 달큰했지만, 그밖에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온갖 맛이 풀마다 있었고, 또 모든 풀들이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온갖 풀들을 한꺼번에 입에 넣어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정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온갖 들풀이 내 몸속에 들어와 온갖 맛과 향기의 교향곡을 울려서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구나 싶었다. 밥을 먹다가 정우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것이 배춧잎입니다. 가을 배추는 그래도 팬 찹는데, 봄·여름에 나오는 배추는 아무 맛도 없어요.”

정말 그렇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추가 없으면 나물 반찬이 없는 줄 안다. 그래서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덮어 씌워 가꾸어 언제나 먹고 있다. 상추고 고추고 도라지고 뽕고 다 농약 투성이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서 들에 저절로 나는 풀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것을 먹을 줄 모른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나는 얼마 전부터 활원운동으로 몸을 치료하고 있는데, 활원이란 것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농약 뿌린 채소밖에 먹을 줄 모르는 잘못된 사람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들짐승처럼 들풀을 뜯어 먹으면서 제 몸이 저절로 깨끗해지도록 하는 이치와 아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 습관이며, 과학의 이름이 붙은 의료 행위며, 산업개발이며, 또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며, 온갖 종교의 신앙들이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는가 하

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말 살리는 일도 생각해보니 들푼을 먹거나 몸 안에서 저절로 운동이 일어나서 건강해지도록 하는 일과 아주 비슷한 것이구나 싶어 속으로 많이 놀라고 기뻐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들에게 활원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김 선생한테 이런 내 생각을 말했더니 그 생각이 꼭 맞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날마다’란 우리 말은 쓸 줄 모르고 ‘매일’이라고 한다. ‘찬물’이란 말도 안 하고 ‘냉수’라 한다. ‘잠잔다’, ‘쉴다’도 ‘수면을 취한다’,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데도’라고 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한다. ‘농사꾼에게는 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을 ‘농사꾼에 있어서는 농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서울로 가는 길’이라 할 것을 ‘서울에의 길’이라 하고, ‘만나는 집’을 ‘만남의 집’이라 한다. ‘우리 곡식’이라 하지 않고 ‘신토불이 곡물’이라 하면서 유식을 뺏낸다. 이것이 모두 엄청난 병이다. 아주 고질

이 되어서 수술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제발 우리 말 좀 하면서 살자. 우리 말로 글을 쓰자고 아무리 말해도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어려운 한자말, 일본말, 서양말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이 아이고 어른이고 몸에 해로운 음식만을 죽자꾸나 하고 먹고 또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30년 뒤면 이 지구 상의 모든 족속들이 쓰고 있는 말은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말 30년 뒤에 우리 말과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의 꼴을 보면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정말의 구름은 온 세계를 덮고 있다.

지구가 중병으로 앓고 있다지만 그 지구에 앞서 사람이 먼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구제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내일 지구가 끝장이 나도 오늘 나는 한 그루 감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다.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있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크나큰 그 섭리에 따르는 길이니까. ‘우리말우리얼’을 다시 시작하는 까닭이 이렇하다.



▲ 물방개

## 우리 말 질서를 망가뜨리는 성서

이성인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지난 일요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구약성경 열왕기 상편 19장을 읽는 것을 들었다. 귀로 들어서는 물론 알 수 없었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어 보아도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다. 성경에 달린 간단한 주석을 읽어 보아도 정

확한 뜻을 알 수 없었다. 집에 가서 요즘 말로 옮긴 성서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다.

“분즉 머리말에 솟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기서 ‘한 병 물’이란 말이 이상

했다. 집에 와서 요즘 번역한 책을 보니 ‘물 한 병’으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에서 쓰는 성서는 ‘개역 한글판’이란 것이다. 1950년대에 나온 성서인데, 그 시절에는 ‘물 한 병’을 ‘한 병 물’이라고 한 것일까.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 보아도 분명한 뜻을 알기 힘들다. 한글로 적은 중국글자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중국글자로 된 ‘간이국한문판’을 읽으면 이번에는 중국글자를 읽을 수 없어서 찢찢매게 된다. 낱말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문맥도 도무지 우리 말 같지 않다. 옛 글투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잘못된 번역투여서 그럴 것이라 짐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성서를 거의 천만 명쯤 된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읽어야 한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생도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앵무새처럼 그냥 글자만 달달 외워야 한다.

그냥 어렵기만 하면 모르지만, 문체는 이 성서가 우리 말 질서에 어긋난 말을 몇십 년 동안 퍼뜨려 왔

다는 점이다. 기독교 신자가 가장 자주 읽는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

그렇게 어려운 중국글자말을 많이 쓴 개역 한글판 성서에서 ‘탄생’이라 쓰지 않고 ‘나심’이라 쓴 것은 놀랍지만 이렇게 써도 우리 말 같지 않다. 올해 새로 펴낸 ‘표준 새 번역’ 성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을 우리 말 답게 제대로 옮긴 성서는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교회 예배용은 아니고 읽는 사람들을 위해 펴낸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뒤늦게나마 개신교 교회에서 현대말로 된 성서를 쓰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런데 앞으로 개역 한글판 대신 쓸 성서가 표준 새 번역 성서라고 한다. 이 성서가 우리 말 답게 옮겨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긴



않았지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날날이 이세벨에게 알려 주었다.” (열왕기 상 19장 1절)

한 문장에 쉼표(반점)가 세 개 쓰였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왜 필요 없는 쉼표를 찍었을까? 혹시 쉼표를 자주 찍는 영어 문장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 영어 성서를 찾아보았다. 내가 본 네 권 가운데 세 권은 쉼표 한 개를 찍었고, 한 권은 아예 찍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영어 번역투는 아니다.

개역 한글판은 글짐을 아주 짝어 놓지 않은 옛글투인데, 표준 새 번역은 온통 쉼표투성이다. 한 군데만 더 들어 보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마태복음 1장 22절)

첫 쉼표는 있어도 되지만, 둘째 쉼표는 아주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어쨌든 필요 없는 쉼표 또한 우리 말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우리 말은 활용어미가 발달해 있어서 영어처럼 쉼표를 마구 찍어 놓은 표준 새 번역 성서가 널리 퍼지면 쓸데없는 자리에 쉼표를 마구 찍는 글버릇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1993. 9. 27

\* 약 30년 전 일본 아이들의 글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글쓰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뒤편에 나오는 ‘외국 어린이 글’)이 나왔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여러 해 뒤에 보았더니 쉼표가 너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번역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원문을 그대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본글 직역을 하면 쉼표를 많이 찍게 됩니다. 일본글 모방해서 쓴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小說家) 구보(仇甫) 씨(氏)의 일일(一日)>(1934)도 쉼표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 한겨레 말꽃

최종규 우리말겨레모임 운영위원  
 쓴 책으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등이 있음.

### [말뭉치 찾기] 슬슬 스스럼없이 수 수한 숲

비가 오는 날 빗물을 바라보면서 이 빗방울은 어떻게 저 하늘에서 구름으로 뭉쳤다가 스스로 내려오는지 하고 생각합니다. 구름이 작으면 비가 일찍 그치고, 구름이 크면 비가 오래 가겠지요.

구름은 모름지기 바다에서 아지랑이로 피어나서 뭉치는 물방울이라 할 만합니다. 비가 올 적에 살짝 비릿하구나 싶은 냄새가 나요. 바다에서 살아가는 숨결한테서 비린내가 난다고 하지요. ‘비릿하다 비린내’에 ‘비’가 한동아리예요.

비가 올 적에 나는 냄새를 가만히 느끼다가 혀를 내밀어 빗방울을 톡

톡 먹어 보면 뜻밖에도 비린맛이 안 나요.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먹는 물 맛하고 확 다릅니다. 바닷물로 이룬 구름에서 내리는 비라지만, 정작 하늘에서 바람을 가르며 땅으로 찾아올 적에는 풀꽃나무나 바닥을 통통 튀기면서 냄새를 털어내고서 물방울에는 마알장게 하늘빛을 담는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구름이 사그라들도록 비가 오는 사이 새롭게 구름이 생길 수 있어요. 구름은 바다에서도 피어나지만 숲이나 뗏자락에서도 피어나거든요. 우리 몸이나 풀꽃나무한테서 빠져나온 물방울도 새삼스레 아지랑이가 되어 하늘로 오를 테니, “비가 되는 구름”에는 그야말로 온갖 물기운이 서리거나 섞인다고 할

만합니다.

이 빗물을 스스럼없이 받아먹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은 빗물입니다. 이 빗물은 먼저 풀꽃나무를 적시면서 땅으로 스며요. 땅으로 스민 빗물은 이 별을 고루 누비던 기운을 바탕으로 찬찬히 땅밑에서 머물다가 샘물로 솟고, 샘물은 이내 냇물로 이어가고, 냇물은 차근차근 바닷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스스럼다 스스럼없다

낱말 뜻을 본다면, ‘스스럼다’는 “1. 서로 가깝거나 깊게 사귀지 않아 낯·말·몸짓을 가리다. 서로 슬슬 보거나 가리다 2. 다른 사람 앞에서 말·몸짓을 보이기 조금 어렵다. 살짝 수줍거나 부끄럽다”를 가리킵니다. 슬슬 가리거나 슬쩍슬쩍 어려워하는 몸짓인 ‘스스럼다’예요. 이와 달리 ‘스스럼없다(스스럼다 + 없다)’라는 낱말은 슬슬 가리거나 슬쩍슬쩍 어려워하는 몸짓이 없을 적을 가

리키지요.

말을 선뜻 건네기가 어쩐지 스스러울 수 있지만, 말을 선뜻선뜻 스스럼없이 건넵니다. 내 입으로 밝히기에 스스러울 때가 있다면, 내 입으로 스스럼없이 밝혀요.

‘스스럼다 스스럼없다’는 ‘스스로’하고 잇닿습니다. ‘스스로’는 “1. 바로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2. 바로 내 힘으로 (다른 힘을 안 바라고 가볍게) 3.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서 4. 아무한테서도 힘을 받지 않고 (다른 힘이 없이 가볍게. 저절로)”를 가리켜요. 다른 힘을 바라거나 생각하지 않고서 가볍게 바로 ‘나(내)’가 움직이거나 가거나 하는 ‘스스로’인데요, 이 낱말은 ‘가볍게(살살·슬슬)’ 움직이거나 가는 걸을 담아요.

슬슬·슬그머니·슬쩍

살살·살그머니·살짝

가볍게 만지니 슬슬이거나 살살입니다. 가볍게 가니 슬그머니에 살

그머니예요. 가볍게 건드리거나 하기에 슬쩍이자 살짝이지요.

서두르지 않으면서 슬슬 합니다. 느긋하게 다스리면서 살살 합니다. 얼른 할 까닭이 없으니 슬그머니 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매우 조용 조용 살그머니 해요. 티가 나지 않게 슬쩍 건드려요. 굳이 둘레에 알리지 않고서 살짝 거들거나 이바지하거나 바라지하거나 돕습니다.

더 생각하면 이 ‘살’하고 맞물리는 ‘살결·살갗’입니다. 우리 몸을 곁에서 덮은 살가죽(살갗)은 가볍고 얇습니다. “가볍게 덮은 가죽”이기에 ‘살갗’이면서 “스스로 감싸는 가죽”인 ‘살갗’일 테지요.

살리다·살찌우다·살림·살갗·살아  
숨쉬다

슬기

살리는 모든 길은 안 무겁습니다. 새롭고 반갑습니다. 살찌우는 바탕도 안 무거워요. 산뜻하고 즐겁지요. 살리는 길은 스스로없이 나아가는

가벼우면서 상큼한 몸짓입니다. 살찌우는 살림은 스스로 가뿐가뿐 가다듬는 손길이자 손빛이예요.

살갗을 살살 쓰다듬어요. 오직 사랑이란 마음이 되어 살을 부드럽이 매만져요. 아기 살갗은 더없이 보드랍습니다. 싱그러이 살아서 숨쉬는 빛살을 여리면서 가볍게 덮은 살을 만지면서 느낍니다. 이 살갗은 햇볕을 머금어 까무잡잡하게 달라지니, 이때에는 가볍고 싱그러운 빛에다가 튼튼하며 다부진 빛을 엮는 셈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오늘은 가벼이 숨을 받아들이고 내뿜어요. 무겁게 숨쉴다면 참으로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힘들 테지요. 무겁게 숨쉴 적에는 싱그럽다고 여기기 어려워요. 살림빛이란 새가 하늘을 가볍게 나는 듯한 ‘살살·슬슬’입니다.

그리고 보면 ‘슬기·슬기롭다’는 “슬슬 피어나는 반짝이는 기운”이라고 할 만해요. 슬기로운 어른은 무겁거나 묵직하게 말하거나 이끌지 않아요. 슬기로운 말은 어렵거나 까

다롭거나 힘들지 않아요. “누구나 가벼이 맞아들이고 싱그럽게 퍼서 누릴 만한 빛나는 생각”인 슬기입니다. 가벼우면서 빛나고, 스스럼없으면서 반짝이는 생각인 슬기예요.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면 어린이일 적에도 ‘철들었구나’ 하고 말해요. 철들지 않은 어른이라면 바보스럽거나 어리석다고 하지요. 나이가 어려도 철든 사람한테는 ‘어른스럽구나’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른’이라는 낱말은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이 아닌, 슬기로운 녀석으로 어떤 일이든 가볍고 눈부시게 할 줄 아는 철든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지 싶습니다.

슬슬·살살·술술·술술

수수하다

수북하다·수두룩하다

수풀·숲

수수꽃다리

가벼이 나아가는 ‘슬슬·살살’은 ‘술술·술술’로도 이어요. 이쯤에서

‘수·’로 잇는 ‘수수하다’하고 ‘수북하다·수두룩하다’를 새삼스레 떠올립니다. 가벼이면서 싱그럽게 나아가기에 넉넉하거나 많습니다. 때로는 ‘흔하다’나 ‘너르다’라고도 하는데, 수수하다고 할 적에는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이요, ‘쉽게’ 할 적에는 “어렵지 않게, 가볍게, 살살” 하며 이루지요. 어렵지 않고 가벼우며 살살 마주하는 ‘수수하다’처럼, 참으로 많거나 넉넉하다 싶은 ‘수북수북·수두룩’처럼, 우리를 둘러싼 수풀(숲)도 풀꽃나무가 싱그럽고 가벼우며 산뜻하고 푸르게, 또 넉넉하면서 넘실넘실 너르게 있습니다.

어렵거나 무겁게 나아간다면 모두 막히거나 민둥갯(민둥산)처럼 되지 싫어요. 가볍게 퍼지면서 싱그럽게 춤추기에, 스스럼없이 스스로 피어나기에 숲이 되는구나 싫어요. 스스럼없이 스스로 피어나는 빛으로 나아간다면, 늘 넉넉하고 너를 뿐 아니라, 슬기롭게 거듭나면서 철마다 새롭게 흐드러질 테고요.

그리고 보면 ‘수수꽃다리’ 같은

나무이름은 얼마나 멋스럽고 아름다운가요. 꽃도 잎도 알도 줄기도 모두 수수하지만, 이 수수한 빛이 흐드러지기에 수수꽃다리 같은 이름이 로구나 싫어요.

수월하다. 쉽다  
쉬다. 쉬엄쉬엄

숲에서는 풀꽃나무에 짐승에 벌나비에 사람에게 새도 스스럼없이 어우러집니다. 서로 수월하게 만나고 마주하고 쉬이며 사귀어요. 쉽게 자라고 쉽게 꽃이 핍니다. 쉽게 풀을 먹고 쉽게 나비로 깨어납니다.

숲에 깃들며 쉰다고 해요. 숲에서 베푸는 푸른 기운을 맞이들이니 몸이며 마음을 쉬엄쉬엄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숨을 숨답게 쉽게 마시면서 몸이며 마음을 쉬는 곳이기에 숲이라 할 만하겠구나 싫어요. 우리가 스스로 스스럼없이 숨을 마시는 숲을 사랑할 줄 안다면, 어떤 일이건 수월하게 풀고 쉽게 맺으면서 나누겠구나 싶고요,

수다 이야기  
수더분하다

쉽게 나아가는 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수월하게 말을 쉬는 일을 나타내는 ‘수다’가 떠오릅니다. ‘수다’는 가볍게 나누는 말입니다. ‘이야기’는 생각을 나누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낱말을 새삼스레 “수다: 가볍게 다가가면서 나누는 말”하고 “이야기: 깊이 들어가면서 나누는 말”처럼 갈라 볼 만해요.

오래 ‘수다’라고 하면 “쓸데없이 많은 말”로만 다루는데, ‘스·수·사·쉬’로 잇는 말씨를 그리면서 다시 생각해 봐요. ‘수더분하다’ 같은 낱말도 떠올려요. ‘수다’라고 할 적에는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누구나 다가서기 좋은 말이기에 ‘수다’입니다. 처음 마음을 열면서 즐겁게 나누는 말일 ‘수다’예요.

동무로 사귀려고 문득 건네고 받는 말인 ‘수다’랄까요. 처음에는 수다로 길을 트고, 어느덧 생각을 깊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로 무르익지요. 처음부터 막바로 ‘이야기’로 접어들기는 어려워요. 차근차근 말을 펴고, 수다가 되고, 생각이 자라면서, 이윽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서로  
 섞다 섞이다  
 서글서글·사귀다·사랑  
 순·숫

수다나 이야기는 혼자 못 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수다나 이야기를 해요. 말은 혼자서도 하기에 ‘혼잣말’이라 하지요. 서로 보면서 이리 가고 저리 오는 말은 수다요 이야기입니다. 서로 있는 말, 섞는 말, 섞이는 생각이기에 수다요 이야기예요.

“서로 있는”을 나타내는 ‘섞다’라는 길로 갈 적에는 우리가 서글서글 합니다. 섞일 적에는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거든요. 까다롭거나 어렵면 못 섞여요. 서로 상냥하거나 살갑

게 만나기에 서글서글한, 섞이는 길입니다. 섞이기에 마음이 만나고, 마음을 읽고, 마음을 알아, 마음을 가꾸거나 북돋우는 생각으로 뻗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는 섞이는 몸짓이기에 ‘사귀다’라 해요. ‘사랑’이란 낱말도 이런 얼거리예요. 마음으로 돌보면서 따스하고 즐거운 빛을 나누기에 ‘사랑’이에요. 섞이면서 마음을 읽고 나누어 하나가 될 줄 알아 새롭게 빛나는 숨결을 그리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숨결은 사랑일 적에 빛나요. 이도 저도 아닌, 티도 먼지도 흉도 없는, 오롯이 밝은 숨결인 사랑인데요, “순 마음으로 맑게 마주하는 빛”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수수한 기운으로 가득한 ‘순’이자 ‘숫’이랄까요. “순 놀기만 하고”처럼 말하고 ‘숫사내·숫가시내’처럼 말하는데, 싱그러이 사랑스러운 기운으로 있다는 걸을 살며시 담은 낱말이지 싶습니다.

## 말 좀 생각해 본다면

최종규 우리말겨레모임 운영위원  
 쓴 책으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등이 있음.

### ㄱ. 글결

옛날에는 글꽃(문학)을 한문을 아는 이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옛날에도 누구나 입으로 말을 빚었고, 이 말로 이야기를 지었기에,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노래는 언제나 신나는 살림꽃이었습디만, 이 살림꽃을 글로 옮겨적은 이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옛이야기는 두고두고 흐르며 살아남았으나, 여느 삶자리 사람들이 피워낸 살림꽃은 날말로는 남되, 날말을 엮은 짤막짤막한 노랫마디로는 남지 못했어요.

한문으로 글꽃을 하던 분은 ‘운율·각운·율격’을 헤아리면서 이모저모 비슷하게 맞추는 글솜씨를 부렸 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할까요? 오

늘날에도 우리는 글솜씨나 글잔치를 즐겁게 펴면서 재미나게 노래하듯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가요?

네가 베풀어 주는 숨길  
 네가 띄워서 주는 눈길  
 네가 내밀어 주는 손길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결을 맞출 만합니다. 다룻결(각운)도 재미나게 맞출 만하지요. ‘네’하고 ‘주다’를 넣으며 글길이를 똑같이 할 만해요. 끝을 ‘-길’로 척척 붙여도 즐거워요.

서로 힘을 주며 이루는 일  
 서로 틈을 주며 즐기는 삶  
 서로 꿈을 주며 짓는 노래



토씨 ‘-을’을 똑같이 넣고, ‘주며’로 똑같이 받으면서 글길이를 맞추어도 재미있습니다. ‘힘·틈·꿈’은 받침을 ‘ㄱ’으로 맞추기도 했고, 뒤에서는 ‘-는’으로 똑같이 받아서 이어 봅니다. 아주 쉽게 풀어내는 말씨로 말걸을 살립니다. 옛날 글꼴은 글쟁이끼리 노닥이는 열개였다면, 오늘 날 글꼴은 어린이하고 어게동무하면서 놀이하는 잔치가 될 만해요. 석줄글(삼행시)로도 녀줄글(사행시)로도 말놀이랑 글마당을 펴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꽃으로 피웁니다.

## 나. 서울 표준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시골 : 1.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 주로 도시보다 인구수가 적고 인공적인 개발이 덜 돼 자연을 접하기가 쉬운 곳을 이른다 2. 도시로 떠난 사람이 고향을 이르는 말

사투리 :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

는, 표준어가 아닌 말

날말책을 펴면 ‘시골·사투리’를 이처럼 풀이합니다. 이런 뜻풀이가 옳은지 바른지 맞는지 어울리는지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를 따지거나 살피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날말책에 뜻풀이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겠거니 여기곤 합니다. 날말책에 적힌 대로 외우거나 알아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말책 뜻풀이가 늘 옳을 수 있을까요? 날말책 뜻풀이를 읽으면서 아리송하거나 안 맞구나 싶은 이야기가 흐를 적에 ‘아리송해요!’라든지 ‘아니에요!’ 하고 외칠 수 있을까요? 날말책 뜻풀이를 바로잡도록 바랄 수 있을까요?

시골은 서울(도시)하고 떨어진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도시)이 생기기 앞서는 어디나 시골만 있었거든요. 시골이 있기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 시골에서 살림을 짓다가 새로운

삶터인 서울(도시)을 지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서울(도시)’하고 ‘시골’이란 낱말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볼 노릇입니다. 이리면서 ‘사투리·표준말’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쓰는 말이라면 ‘표준말’ 아닌 ‘나라말’입니다. 우리는 ‘서울말’을 배워서 쓸 노릇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함께 쓸 ‘나라말’을 배워서 함께 쓰고, ‘서울 사투리’나 ‘전라 사투리’나 ‘경상 사투리’를 즐겁고 씩씩하게 물려받아 쓸 줄 알아야지 싶어요. 이때에 고장마다 서로 어깨동무하겠지요.

우리 뿌리를 살피면, 시골이란 숲을 바탕으로 가꾼 삶터입니다. 바람을 마시고 냇물·빗물을 먹고 흙을 돌보며 푸나무를 사랑하는 삶터가 시골입니다. 그저 서울에서 떨어진 곳이 아닌, 손수 삶·살림·사랑을 짓는 곳이 시골이에요. 모든 말은, 삶을 짓고 살림을 지으며 사랑을 짓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삶을 말로 읊기고, 살림을 말로 읊기며, 사랑을 말로 읊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말이 되고, 우리가 가꾸며 돌보는 모든 살림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가 말로 거듭나요.

시골이란 터전은 말이 태어난 자리입니다. 오늘날은 시골을 사람이 줄어드는 곳으로만 여겨 버릇하지만, 바로 이 시골에서 밥과 옷과 집이 태어나고, 말과 삶과 살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숨결이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이러한 흐름과 결을 살피면서 시골살림과 시골자리를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가 나누는 말 한 마디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사람은 시골말을 배우면서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골살림을 배우면서 참답고 아름답게 돌볼 사랑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 ㉔. 숨은이 저녁늘

1830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Le Rouge et le Noir”라는 글이 있습니다. ‘Rouge’나 ‘Noir’는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나온 이 글은 우리말로 어떤 이름을 붙여야 어울릴까요? 예전에 붙인 이름은 잇기로 하고, 새롭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둘레에서 누가 “빨강이랑 검정”이란 이름을 붙여서 글을 썼다고 해봅시다. 이 글을 프랑스말로 옮긴다면, 어떤 프랑스말로 이름을 붙여야 어울리거나 알맞거나 좋을까요?

1844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Les Trois Mousquetaires”라는 글이 있습니다. Trois나 Mousquetaires는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두 낱말은 어떤 우리말로 담아낼 적에 어울리거나 알맞거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세동무”라든지 “세또래” 같은 글을 썼다면, 이 글을 프랑스말로 어떤 이름을 붙여서 옮기면 될까요?

예전에 다른 나라 글을 우리말로 옮기던 분은 “적과 흑”이라든지 “삼총사” 같은 한자말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이름 모두 일본을 거쳐 들어온 이름이지 싶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슬기를 갈고닦아서 빛낸 이

름이 아닌, 선불리 이웃나라 손길을 빌려서 슬그머니 내놓은 이름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새로지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어느 스위스사람이 쓴 “Die Abendstunde eines Einsiedlers”를 일본사람은 “隱者の夕暮”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모’란 한자말을 안 쓰는 터라, 이 대목을 ‘黃昏’으로 고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은자의 황혼”으로 옮겼던 분은 나중에 “숨은이의 저녁노을”로 책이름을 고쳐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옮긴이 한 분 손길로 ‘저녁놀·저녁노을’하고 ‘숨은이’란 낱말이 빛을 봅니다. 아주 작은 말마디에 아주 작은 손길을 얹어 앞길에 새롭게 빛줄기가 퍼집니다.

## ㄹ. 나뭇너뭇

1990년대에 어느 분이 벼슬판(정 치판)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을 쓰면서 이 말이 확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벼슬판에서 쓰기 앞서도 사람들이 곳곳에서 제법 썼다고 느껴요. 저는 새뜸(신문·방송)에서 이 말을 떠들썩하게 쓰기 앞서도 여기저기에서 이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에서 앞머리를 딴 ‘내로남불’은 ‘노찰사’하고 비슷한 얼거리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말마디에서 앞머리를 따서 ‘노찰사’라 했어요. 어느 대학교 노래패는 ‘노곳패’란 이름을 썼는데 “노래하는 고깃패”를 줄인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앞머리를 따서 줄이는 이름을 썼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아마 아스라이 먼 옛날부터 썼구나 싶어요. 이름이 기니까 단출하게 쓰려는 마음일 테고, 어떤 일을 하는 무슨 모임인가를 감추려는 마음이 있으며, 쉽고 귀여우며 부드럽게 부를 이름으로 가볍게 줄이는 마음이었다고 느껴요.

이렇게 몇 마디를 따서 줄이는 이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자말에도 영어에도 있고 일본말에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마땅히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긴 이름을 꼬박꼬박 다 말하기 힘들거나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자주 쓰는 즐겁거나 사랑스러운 이름이니 가볍게 줄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로남불’이란 말을 처음 들을 적에 시큰둥했어요. 그무렵에 저는 딱히 짝궁이 없어, ‘로맨스이든 불륜이든 할 일이 없다’ 보니 이런 말을 둘레에서 쓰거나 말거나 눈길도 안 가더군요. 그렇다고 짝궁이 있고 아이를 돌보는 오늘이 되었는데서 로맨스나 불륜을 할 일이란 없습니다만, 문득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나 느낌을 저라면 어떤 낱말을 엮어서 나타내겠느냐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나멋너못’이나 ‘내멋남못’ 같은 이름을 떠올립니다. “나는 멋있고 너는 못났어”요 “내가 하면 멋나고, 남이 하면 못나”예요. 수수하게 ‘외곬·외뽀’이나 ‘외곬눈·외곬눈’처럼 그러도 어울리지 싶어요.

## 우리말 속의 꽃 ‘속담’

김 화 북조선의 국어학자  
《조선말속담편람》에서.

르(ㄴ,ㅇ)

**낙제국을 먹다** - <낙제를 하다>  
를 농으로 이르는 말. / 낙제국을  
먹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낙인(을) 찍다** - 지워 없애기 어  
려운 부정 딱지를 붙인 이름이나 평  
가를 주다.

**낭장판(을) 치다** - 여러 사람이  
함부로 막 떠돌거나 덤비면서 뒤죽  
박죽이 되게 하다.

**낭패(를) 보다** - 낭패를 당하다. /  
선불리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보면 어  
찌자고?

**양심을 팔다** -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처신하다.

**역사의 수레바퀴** - <사회 역사의  
발전 행정>을 비겨 이르는 말. / 역  
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

다.

**연락(을) 짓다** - 연락이 닿게 하  
다.

**연락을 띄우다** - 연락을 보낸다.

**염치가 없다** - 체면도 부끄러움  
도 없다. /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염치(를) 차리다** - 염치를 알아  
그것에 어그러지거나 부끄럽지 않  
게 행동하다. / 어린 것도 염치를  
차려 상 위의 사탕과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망(이) 나다** - 노망한 경향이나  
증세가 나타나다.

**노망(이) 들다** - 노망이 생기다. /  
노망이 든 늙은이처럼 주책없다.

**노송나무 밀이다** - 마음이 우울  
하고 우중충하다.

**녹음(이) 우거지다** - 나뭇잎이 푸  
르싱싱하게 많이 자라고 퍼져 그늘

이 지다.

**논단에 오르다** - 논의나 토론의 대상으로 되다. / 논단에 오른 그의 독특한 견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단(을) 부리다** -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교활한 짓을 하다.

**농(을) 치다** - <농을 하다>를 세계 이르는 말. / 농을 친 소리니 달리 생각지 말게.

**용트림(을) 치다** - ① 불길이 삼킬 듯이 거만하게 빙빙 타래를 지어 타고오른다. ② (생각이나 이상이) 꿈틀꿈틀 솟아오른다.

**누명을 벗다** - 누명(더러운 이름)을 써오다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누명을 쓰지 않게 되다.  
↔ 누명을 쓰다.

**능지가 되다** - 매를 몹시 맞아 몸을 가눌 수 없이 되다. / 능지가 되도록 못매를 맞았다.

**이간(을) 붙이다** - 이간질을 하여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버성기게 하다. / 그 사람은 없는 소리를

를 날라가지고 다니면서 이웃사이에 이간을 붙였다.

**이면(이) 없다** - 경위를 알고 체면을 차릴만한 깨달음이 없다. / 이면이 없는 철주는 모여 엮은 사람들이 어떻게 든든 신경 쓰지 않고 제말만 했다.

**냉가슴(을) 앓다** - 마음속으로 가슴 아프게 고민하다.

**냉수를 끼었다** = 찬물을 끼었다.

□

**마당삼을 캐다** - 아주 쉽사리 횡재를 하다.

**마련(이) 없다** - ① 준비하여 갖춘 것이 따로 없다. ② 어떻게 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궁리나 계획, 대책 같은 것이 없다. ③ 도무지 형편이 없다.

**마른벼락(을) 맞다** -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재난을 당하다.

**마수를 뺏치다** - (남을 해치려고) 음흉하고 흉악한 책동을 펴다.

**마지못하여** -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마음(을) 놓다** -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다. / 마음을 놓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니 실컷 배우거라.

**마음(을) 돌리다** - 품고 있던 마음을 되돌려 달리 가지다. / 민수는 가난한 이곳을 떠나려던 마음을 돌리고 억척스럽게 일하였다.

**마음(을) 먹다** - ①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이나 생각을 가지다. ② (주로 <마음먹고> 형으로 쓰이며) 마음껏 성의를 다하다.

**마음(을) 붙이다** - (무엇에) 마음을 안착시키다. / 새 일터에 마음을 붙이다.

**마음(이) 내키다** -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 들다. / 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는 법이다.

**마음(이) 들뜨다** -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안착되지 않아 들쭉하게 되다.

**마음이 콩알만하다** - (어떤 일이 생기여) 불안스럽고 초조하여 마음

을 펴지 못하다.

**마음이 한줌만해지다** - (몹시 불안스럽거나 초조하여) 마음이 자꾸 죄여들다.

**마음에 걸리다** - 마음이 편치 않고 걱정되다.

**마음에 들다** - 마음이나 기분에 맞아 좋게 여겨지다. / 새 학교가 마음에 들다.

**마음에 쏠이다** - ① 짐작이 가다. ②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마음에 없다** - 무엇을 하거나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마음에 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다** - ① 더는 어찌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지다. ② 끝이 막혀서 통하지 못하게 된 골목에 들어서다. = 막다른 궁지에 빠지다.

**막을 단다** - ① (무대 위에서) 공연을 끝낸다. ② 어떤 행사나 일을 끝낸다. = 막을 내리다. ↔ 막을 열다, 막을 올리다.

**막앞에 오르다** -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를 비겨 이

르는 말.

**만리장성을 쌓다** - 만리나 되는 매우 크고 긴 성을 쌓는다는 뜻으로 <담을 쌓고 바깥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를 이르는 말.

**만부하(를) 걸다** - 사람이나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낼 수 있도록 힘쓰거나 돌리다. / 기계에 만부하를 걸다.

**만세만 부르다** - (일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자그마한 성과를 크게 내세우면서 자랑하다.

**말 깔지 않다** - (말이) 이치나 상식에 어긋나 말답지 않다. / 말이 말 깔지 않아서 모두들 콧방귀를 뀌었다.

**말끝(을) 달다** - 남이 말하는 옆에서 덩달아 말하다. /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말끝을 달았다가 혼났다.

**말도 말아라** - 어떤 사실이 이만 저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쪽 사람에게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말도 말게.

**말로만 꾸러가다** - 실제로는 하

지 않고 말로만 굶뎀다.

**말머리를 돌리다** - (이야기할 때) 하던 이야기는 그만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다.

**말문을 떼다(열다)** - 입을 벌려 말을 시작하다.

**말문이 막히다** - 하려고 하던 말이 나오지 않게 되다. ↔ 말문이 열린다.

**말미(를) 받다** - 휴가를 얻다. / 말미를 받고 고향에 가다.

**말발이 서다** - 말하는 대로 시행이 잘 되다. / 공장장의 말발이 서니 일이 계획대로 나아간다.

**말법에 오르다** - 좋지 못한 이야기거리의 대상으로 되다.

**말본전도 못찾다** - 말한 보람이 전혀 없게 되다. = 말밑천도 못찾다.

**말허리를 꺾다** - 하고 있는 말을 중간에서 꺾다. = 말허리를 끊다, 말허리를 자르다.

**말꼬리를 잡다** - 남이 말한 가운데서 어떤 약점을 잡다. = 말꼬리를 쥐다.



**말꼭지를 떼다** - 말의 첫마디를 떼다.

**말끝을 흐리다** - 말끝을 분명히 맺지 못하고 얼버무리다.

**말쌩(을) 부리다** - 말쌩을 일으켜 일을 버르집어놓다.

**말씨(를) 뿌리다** -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그 말이 널리 퍼지게 하다.

**말을 비치다** - ① (어떤 애용에 대하여) 저쪽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말을 건네다. ② 남들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한 마디 하다.

**말이 많다** - ① 필요보다 말을 많이 하다. /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② 어떤 사실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다. / 그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드물다. ↔ 말이 적다.

**말이 새다** - 숨겨야 할 말이 남에게 알려지다. / 말이 새지 않게 입을 조심하거라.

**말이 통하다** - 말이 저쪽 사람에게 이해되다.

**맛(을) 들이다** - ① 맛이 들게 하다. ② 맛을 알아 좋아하게 되다.

**맛(을) 붙이다** - ① 맛을 들이다. ②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망녕(이) 들다** - 망녕이 생기다. / 할머니가 망녕이 들어 홀로 앉아서 중얼거린다.

**망(을) 보다** - 일정 대상의 움직임을 미리 알기 위하여 지켜 살피다.

**맞불을 놓다** - ① 대응하여 총질을 하다. ② 불붙은 맞은편에서 마주 불을 놓다. / 산불이 저쪽 산등성이에 번지기 전에 맞불을 놓았다.

**맞장구(를) 치다** - 한 짝이 되어 서로의 말이나 행동을 긍정하거나 추어올리거나 부추겨대다. / 회수는 영덕이와 단짠이 되어 맞장구를 쳤다. = 맞장단을 치다, 맞방아를 째다.

**머리(가) 들다** - ① 생각이 어떤 요구에 맞게 그때 그때에 잘 움직이거나 미치다. ② (정신이나 의식이) 정상 상태를 벗어나다.

**머리(를) 굽히다** - ① 남에게 굴

복하다. ②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주저하다. ③ (도도하거나 교만한 티를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다.

**머리를 숙이다** - ① (존경하거나 탄복하는 마음으로) 경의를 나타내다. ② 겸손한 태도를 가지다. ③ (견뎌내지 못하고) 수그리거나 굴복하다.

**머리를 흔들다** -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속심을 나타내다.

**머리를 깎다** - ① 죄를 지어서 징역을 살게 되다. ② 군대를 가게 되다. ③ 출가하여 스님이 되다.

**머리를 싸매고** - 정력이나 힘을 기울여 열심히.

**머리(를) 썩이다** - (어렵거나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골똘히 생각하며 애를 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 ① 몸 전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② 철저히, 완전히 라는 뜻.

**먹고 죽자 해도 없다** - 아주 귀하여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다.

**먹물(을) 먹다** - 글공부를 하여 지식을 얻다. / 그래도 먹물을 먹은 사람이 다르다.

**먼동이 트다** - (날이 밝느라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다. / 먼동이 트자 짐을 꾸리고 길 떠날 준비를 하였다.

**멀미(가) 나다** - ① 차에 오래 타서 어지럽다. ② 어떤 일에 몰려서 진저리가 나도록 싫은 증세가 생긴다. / 누나의 잔소리에 멀미가 난다.

**멀쩡한 거짓말** - 속이 뻔히 들어다보이는 티무니없는 거짓말. / 멀쩡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았다.

**멋(을) 모르다** - (영문, 이유, 내막 등을) 알지 못하다. / 멋모르고 따라나섰다고 혼났다.

**멍(이) 들다** - ① 무엇에 맞거나 세계 부딪쳐서 살갓 속에 피가 몰려 꺼멓게 멧히다. ② 일이 속으로 탈이 생긴다. ③ 마음속의 쓰라린 고통의 흔적이 남다.

**멍에를 메다** -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얽매이다. / 노예의 멍에를 메고 우리와 같은 처참한 생활을

하였다. = 멩에를 쓰다.

**떡살을 들다** - 떡살을 추켜잡다.  
/ 그는 덤벼드는 놈팽이의 떡살을 들어 보기 좋게 메쳤다.

**떡수(를) 보다** - 어떤 문제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데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잡다.

**면목을 내다** - 마음이나 쓰는 뜻이 낮을 내다.

**면목이 없다** - 죄송스럽거나 미안하여 대하기가 땃땃하지 못하다.  
= 볼 낮이 없다.

**명맥(을) 틀어쥐다** - 가장 요긴한 부분이나 대목을 장악하다.

**명색이 좋다** - 실질이 없는 이름만 듣기 좋다. / 명색이 좋아 여행이지 고생만 했다.

**명통을 찌르다** - ① 목숨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찌르다.  
② 어떤 문제의 중요한 대목을 잡다. / 인호는 그들이 낸 문제의 실질에 명통을 찌렀다.

**모(가) 나다** - ① 모양이 둥글지 않고 모를 이룬다. ② 성질이나 행동 또는 하는 일이 남달리 드러나게

표가 나다.

**모골이 송연하다** - (아주 끔찍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볼 때에) 두려워 몸이 으쓱하여지고 뼈가 찌릿찌릿하다.

**모닥불을 뒤집어쓰다** - 심한 모욕이나 무안을 당하다. = 모닥불을 들쓰다.

**모르쇠를 대다** - 덮어놓고 모른 채하거나 또는 모른다고 하다. / 자네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겠는데 왜 나한테는 모르쇠를 대나?

**모(를) 꺾어 앓다** - 어떤 것에 향하여 마주 앉지 않고 약간 옆을 향하여 앓다. / 순길이는 부끄러워 모를 꺾어 앓았다.

**모래알을 세다** - 조롱하듯이 (성격이) 지나치게 깐깐하다.

**모지름을 쓰다** - 괴로움을 견디어 내거나 이겨내려고 기를 쓰다. / 그는 악이 받쳐서 모지름을 쓰며 두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들었다.

**모양이 개질량이다** - 체면이나 위신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다. / 그렇게 뽐내고 우쭐대더니 이번에

는 모양이 개질량이다.

**모양(이) 사납다** - ① 모양이 보기 흉하다. ② 남을 대하기가 멋쩍지 못하고 창피하거나 언짢다.

**모양(이) 아니다** - 차마 그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목구멍에 풀칠하다** - 굶지 않고 겨우 먹고 살아간다.

**목구멍(의) 때를 벗기다** - 음식물을 마음껏 먹다.

**목놓아 울다** - 목소리를 크게 내어 울다.

**목덜미를 잡히다** - 어떤 약점이나 죄행이 피할 수 없게 드러나게 되다. /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좁도 적질에 이골이 나더니 끝내 목덜미를 잡혔다.

**목대(가) 세다** - 고집이나 주견이 세다.

**목말(을) 타다** - 남의 어깨 위에 올라앉다. / 아이는 아버지 목말을 타고 방안을 빙빙 돌았다.

**목숨을 걸다** - (무엇을 기어코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다. /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 싸우다. = 목숨을 내걸다.

**목숨을 버리다** - ① 죽다. ② 죽을 결심을 하거나 죽을 셈치고 열심히 하다. / 목숨을 버리고 일하다. = 생명을 버리다.

**목숨을 아끼다** - 죽기를 아깝게 여기거나 더 오래 살려고 생각하다.

**목젓이 방이를 쥘다** - <먹을 것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게 되어 몹시 먹고 싶어 하다>를 비겨 이르는 말.

**목청을 돋우다** - 목소리를 높인다. /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부른다.

**목안의 소리** - 크게 말하지 못하고 방안에서 겨우 들릴락말락하게 내는 목소리.

**목이 달아나다** - ① 죽음을 당하다. ② 직위에서 물러나다.

**목이 빠지게** - (<기다리다>와 함께 쓰이며) 몹시 안타깝게.

**목에 핏대를 세우다** - <몹시 노하거나 흥분하여 감정이 격하다>를 이르는 말. /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다툼을 하다.

**몸들 곳을 모르다** - (부끄럽거나 황송하거나 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다. = 몸들 바를 모르다.

**몸부림(을) 치다** - (기를 쓰거나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때에) 몹시 기승부리며 몸을 내흔들다. / 아이가 몸부림을 치며 울다.

**몸살(이) 나다** - ① 몸살 때문에 앓다. ②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못 견디다. / 낚시를 가지 못하여 몸살이 났다.

**몸이 달다** - ① 몸에 열이 몹시 나 뜨거워지다. ②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안타깝고 조마조마하다.

**못하는 소리가 없다** - ① 장소와 환경에 대한 고려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다. ② (어린 아이가) 말을 마음대로 잘하다.

**못(을) 바다** - ① 함부로 어찌할 수 없게 따져서 억눌러 놓다. ② 원통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맺히게 하다.

**무릎방아를 찼다** - 앞으로 엎어 지다.

**무릎(을) 꿇다** - ① 견뎌 배기지 못하여 굽혀 들거나 항복하다. ② 무릎을 굽혀 정중한 몸가짐을 하다.

**무슨 감투끈인지 모르겠다** - 일의 내용과 원인을 알 수 없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 (여느 때와 는 다르게 뜻밖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생겨서 또는 무슨 일이 생겨서.

**뽀뽀 해도** - 이것저것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리가 나다** - ① 이치를 깨쳐 글뜻을 알다. ② 사물의 이치를 깨닫다. /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니 문리가 났다.

**문맥이 통하다** - 글의 서술이 앞 뒤관계가 맞고 뜻이 잘 이해되다. / 문맥이 통하지 않는 글은 보고도 뜻을 알 수 없다.

**문밖에서 들다** - 내용에 깊이 파고들지 않다.

**문제를 세우다** - 해결할 문제로서 내거나 검토할 대상으로 삼다.

**문턱이 높다** - ① 들어가기가 힘들다. / 대외무역 회사가 그토록 문

턱이 높은 줄을 알았다라면 누가 감히 들어가려 했겠는가. ② 만나거나 상대하기가 어렵다. / 그가 진급하니 문턱이 높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문턱이 닳다** - (주로 <문턱이 닳도록>의 형으로 쓰이며) 자주 드나들다.

**문질이 푹푹하다** - 글 짓고 글씨 쓰는 솜씨가 보통 정도보다 훨씬 높다.

**물고기(의) 밥이 되다** - (사람이) 물에 빠져 죽다. / 도망치던 적의 군사들은 강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었다.

**물벼락을 맞다** - 남이 쏟거나 버리거나 하는 물을 뜻밖에 받아 뒤집어쓰다. ↔ 물벼락을 안기다.

**물불을 가리지(헤아리지) 않다** -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돌보지 않고) 희생하듯 행동하다.

**물수제비(를) 뜨다** - 얇고 둥근 돌을 물 위에 빗던져서 담뱃담뱃 수면을 뛰어가게 하다. / 아이들이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뜬다.

**물장구(를) 치다** - 물 위에 엮드려 발등으로 물을 내리치다. / 산에 올라 꽃도 꺾고 강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물(을) 먹다** - 어떤 사회 환경의 영향을 입다.

**물이 날다** - 본래의 빛깔이 변하여 흐릿해지다. / 물이 난 옷.

**물(이) 오르다** - ① (봄에 식물의) 뿌리에서 물기가 가지로 스며 오르다. ② 기운이나 기세가 퍼져서 좋아지다.

**미궁에 들다** - 사건이 복잡하고 난처하게 되어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다.

**미림이 트다(나다)** - 경험으로 묘한 이치나 요령이 생기다.

**미역국(을) 먹다** - 속되게 시험이나 일자리 등에서 떨어지다.

**밀도 끝도 모르다** - 무슨 영문인지 모르다. = 밀도 모르다.

**밀창(이) 나다** - 밀천이 떨어지거나 있는 대로 다 써서 거덜이 나다. = 밀창이 드러나다.

**밀천도 못찾다** - (이득을 얻을까

하여 어떤 일을 하였다가 실패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다.

**밀천이 짧다(발다)** - 밀천이 적  
거나 모자라다.

**밀뿌리채 뒤흔들다** - (나무를 넘  
어뜨리기 위하여 밀뿌리를 들추어  
흔드는 것처럼) 정권, 통치세계, 사  
회제도 같은 것을 전복하거나 파괴  
하려고 근본부터 타격을 주다.

**밀이 구리다** - 떼떽하게 행동하  
지 못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밀이 드러나다** - ① 있던 물건이  
다 없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다.  
②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다. =  
바다에 드러나다.

**매듭(을) 짓다** - 어떤 일을 그 순  
서대로 한 가지씩 결말짓다. / 이제  
까지 끌어오던 문제를 하나하나 매  
듭을 지었다.

**매를 들다** - 매로 다스리다.

**매인 목숨** - <남에게 매여 구속  
받고 자유롭지 못한 처지>를 이르  
는 말.

**맥도 모르다** - (어떤 일의) 내막  
을 알지도 못하다. / 맥도 모르고

지껄이다.

**맥(을) 버리다** - 긴장을 탁 풀다.  
= 맥(을) 놓다.

**멤돌이(를) 치다** - 자꾸 맴을 돌  
아치다. /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서 맴돌이를 치다.

**맹물 같은 소리** - 실속이 없거나  
내용이 없는 소리.

**맷고 끊듯이** - (일 본새나 말과  
행동 같은 것이) 빈틈없이 짜이고  
계선이 똑똑한 상태.

**매주(를) 먹다** - 창피나 꾸지람을  
당하여 툭툭히 망신을 하다.



▲ 짙신나물 꽃

## 우두머리의 조건 (1)

미승우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신 한글학자 지은책으로 《일제농림수탈상》,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 ... 이 글은 《왜 수탈은 덩달아 우는가?》 책에서.

### 우두머리의 조건

목장에 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소들이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계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암소끼리도 힘이 센 차례대로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풀이 많고 좋은 장소는 언제나 계급이 높은 것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여럿이 모여 사는 집단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다. 우리 서민이야 그 싸움에 끼어들을 수나 있겠는가? 그래서 힘이 없는 서민이 차지할 자리는 없어도 나오리들이 차지할 자리는 여기저기에 얼

마든지 있다. 그래서 감투는 쓰고 볼판이라던가.

동물들의 때에는 반드시 그 때를 앞장서서 이끄는 개체가 있다. 그것을 ‘우두머리’라고 한다. 때를 짓지 않는 동물도 한 우리 속에 몰아넣으면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우두머리는 반드시 힘이 센 놈만은 아니고, 또 줄을 맞춰 걸어갈 때라도 반드시 앞장 서는 것도 아니다.

북아프리카의 ‘바바리염소’는 힘이 가장 센 수컷이 두목 노릇을 하고 차례로 계급을 정해 가지만, 그 때를 다스리는 것은 수컷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암컷의 우두머리다. 이런 경우 수컷의 우두머리는 그 때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우두머리’이고 암컷은 그 때 모두를 이끌고 다니는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는 같은 우두머리의 지배를 받는다.

스페인의 높은 산에 가면 야생 염소들이 몇 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 따로따로 떼를 지어 산다. 수컷들은 흰 눈이 뒤덮인 아주 높은 산에서 살고, 암컷은 그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산다. 그리고 수컷의 떼와 암컷의 떼는 일 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난다. 그때가 바로 번식기다.

수컷의 떼에는 수컷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는 나이가 가장 많으면서 똑똑한 놈이다. 또 암컷의 떼에도 암컷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역시 나이가 가장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이 우두머리들은 늘 앞장 서서 지형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 그러니까 맹수나 다른 적이 있는지 살피게 된다. 만일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부하들에게 경계 태세를 갖

추게 하고 적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사람 사회와 견줄 것까지는 없겠지만, 바보 우두머리를 두면 집단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을지 모른다.

동물은 거의 힘이 센 놈이 계급도 높지만, 닭의 경우는 슬기로운 놈일수록 계급이 높다. 초등학교에도 힘이 센 놈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 똑똑한 놈이 실권을 쥐고 있는 학급이 있지만, 이것은 우격다짐 학급과 슬기로운 학급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쌀알을 종이 위에 한 줄로 쪽 깔아 놓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풀칠을 해서 붙여 보자. 이때 두 개 또는 세 개씩 건너서 풀칠을 하면 닭의 지능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바보 닭은 쌀알을 모조리 쪼아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똑똑한 닭은 풀칠을 하지 않은 쌀알만을 골라서 먹는다. 떨어지지 않는 쌀알은 처음부터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것을 쪼아 먹는 시간도 계급이

높은 놈, 그러니까 똑똑한 놈일수록 빠르고 바보일수록 느리다지 뭐냐. 다시 말하면 똑똑한 놈은 몇 알씩 건너서 풀칠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쪼아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슬기로운 우두머리의 사회에서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적지만 우격다짐 사회에서는 낭비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다.

코주부바다코끼리는 북쪽의 한대 지방과 남극 가까이 추운 곳에서만 사는 짐승이다. 그들의 수컷은 큰 몸집에 굉장히 큰 코를 가지고 있다. ‘드골의 코’라고 하면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수컷의 코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히 자란 수컷만이 그렇다. 다시 말해서 크면 클수록 코가 높아진다 그 말이다. 또 코가 높아진다는 것은 계급이 높아지고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커다란 코를 가진 수컷은 그 코에

바람을 잔뜩 넣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다 콧바람을 써서 다른 놈들을 꼼짝 못하게 위협한다. 이렇게 코가 크면 우렁찬 고향을 지를 수 있고 다른 수컷들을 위협하기가 쉽다. 일부다처제인 그들의 사회에서는 마누라 단속에 가장 큰 일거리이므로 애인을 보호한다거나 도망치려는 애인을 묶어 두려면 거센 콧바람이 가장 효과가 있다.

사람 사회에도 ‘입김이 작용한다’느니 ‘입김이 세다’라는 말이 있지만 경쟁자와 싸울 때 코가 꺾이면 콧바람은 위력을 잃게 된다.

## 양반과 상놈

옛날의 조선에 ‘양반’이라는 계급이 있었다. 지체가 높은 분을 가리켜 그렇게 불렀던 모양인데, 그 사회에서 관료 계급은 모두 양반의 무리에 들었던 모양이다.

어떤 양반들은 노력 착취와 금품 강탈을 일삼고 변사또처럼 유부녀

나 처녀를 겁탈하기를 밥 먹듯 했어도 백성은 그저 당하기만 해야 목숨이 붙어 났더라 그 말이다. 그래도 후손들은 그 양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족보 따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글썽 부끄러움 없는 양반 가계가 몇이나 될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원숭이에게 물어보면 알 것도 같소이다.

원숭이의 사회에도 사람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이나 통제가 있다. 말하자면 옛날의 우리 사람 사회처럼 양반과 상놈이라는 사회 계급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다.

원숭이의 사회에는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갈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두목 노릇을 하는 수컷 하나가 있다. 그러나 그 부두목은 늘 두목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행동이 두목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감시라고는 하지만 사회 정화법에 걸릴 만한 부조리나 부정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두목 자리

를 넘보지 못하게 미리 겁을 주는 감시란다.

수컷들 사이에서 계급의 차례가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모님들 사이에도 계급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말하자면 두목의 부인은 남편 되는 두목의 세도를 믿고 사모님 사회의 두목 노릇을 한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 때에도 계급이 높은 것들부터 먼저 잡숫고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도 두목이 고르고 난 뒤에 계급의 차례로 고르게 된다. 그러니까 출세를 해야만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체로 원숭이는 맛이 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버릇이 있다. 만일 상놈의 원숭이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양반이 나타나면 상놈은 자리를 피해야 한다. ‘고양 놈’ 하고 호통을 치기 전에 피해야만 다치지 않는다.

또 양반과 상놈 여러 마리가 있는 곳에서는 양반들만 잡숫고 상놈들은 그저 먼발치에서 입맛만 다시거나 눈치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놈

의 어머니가 건방지게 양반의 도련님보다 먼저 먹으려고 하면, 양반의 도련님은 마구 울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부른다. 물론 그 어머니가 가만있을 리 없다. ‘게 누구냐!’ 하고 겁을 주면 불쌍한 백성은 슬그머니 뺑소니를 칠 수 밖에 없지 뭐가.

내가 출세를 하지 못하면 자식이라도 출세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 사회지만 원숭이들의 사회는 옛날의 사람 사회처럼 그렇지가 못하다. 노는 것도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놀 수 없다. 양반의 새끼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반면에 상놈의 새끼는 오래도록 어머니 품에 안기고만 있거나 어머니 곁에서만 놀아야 한다. 양반의 새끼가 몹시 울기라도 하면 그 어머니는 재빨리 달려와서 ‘어느 상놈이 양반의 자식을 때렸느냐?’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새끼를 때린 원숭이를 맹렬히 물어뜯는다. 그러기에 상놈들은 양반의 새끼가 울기만 해도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치게 마련이다.

양반의 세도가 이러니 상놈의 새

끼는 늘 얻어맞고 특하면 울어 댄다. 그렇더라도 그 어머니는 자기의 새끼를 때린 양반 새끼를 혼낼 수 없으므로 그저 새끼를 안고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할 뿐이다. 위낙 계급이 높은 분들의 귀한 도련님이 저지른 일이니 경우나 법을 따질 엄두를 내지도 못한다. 힘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두 마리의 수컷이 있으면 계급이 높은 양반은 꼬리를 올리고 계급이 낮은 수컷은 꼬리를 내린다. 대감의 감투와 생원의 감투가 다르듯 이들은 머리가 아닌 꼬리로 서로를 감별한다. 때로는 계급이 낮은 수컷이 계급이 높은 수컷에게 자기의 엉덩이를 보이고 자기의 계급이 낮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러고는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동물학에서는 ‘프레젠텩’이라고 한다. 뇌물주기와 같지 뭐가.

계급 제도가 엄격한 ‘일본원숭이’의 사회에서는 어느 원숭이나 자기의 계급을 알고 있다. 두 마리 사이의 서열은 그들이 좋아하는 ‘꿀’을

던져 주면 곧 알 수 있다. 서열이 낮은 놈은 굴이 가까이에 있어도 손을 내밀지 못하지만 양반은 법이나 예의를 따질 것 없이 마음대로 집어 먹을 수 있다. 그들의 부조리나 부정은 언제나 합법이다. 그래서 떡고물을 먹었을 뿐이라고 큰소리를 친다.

감시 대상에 올라있는 수컷이 그 굴을 탐낼 것 같으면 두목은 굴을 주는 값으로 그 수컷의 등에 올라타고 마구 눌러 댈다. 이런 행동은 자기의 지위에 대한 안전도 점검이다.

동물 공화국의 계급 제도를 동물학에서는 ‘순위제’라고 한다. 이 순위제는 짐승만이 아니라 새나 물고기, 벌레, 그 밖의 하등 동물의 사회에도 있고 어느 무리에서나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수단으로 순위제를 쓰고 있다.

### 일본원숭이의 집단

일본원숭이의 집단 안에서 순위

관계가 밝혀진 뒤로 동물 행동학은 새로운 방법으로 빠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원숭이에 대한 연구는 1952년에 모이주기 연구가 성공하면서부터 거기에 따른 개체 식별법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집단의 구성, 집단의 공간배치, 특히 수컷 사이에 순위제, 암컷들의 혈연집단 구조, 그리고 사회 행동이나 정보 전달에 대한 구조들에 관한 것들이다.

일본원숭이의 집단은 60~80마리로 이루어지며 100마리가 넘는 집단은 흔하지 않다. 그리고 한 집단은 1~10평방킬로미터 땅을 가지며 어느 집단이나 늘 새로운 땅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봉건사회에서 지방자치 정부를 떠오르게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보통 집단은 개체수가 150마리쯤 되면 나뉘지며 몇 개의 집단이 이웃에 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동물학에서는 ‘집단의 지역집중’이라고 한다.

집단은 중심부와 그 중심부를 둘러싼 변두리의 두 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심부를 구성하는 것은 그 집단에 들어있는 모든 암컷과 새끼들, 그리고 순위가 높은 몇 마리의 수컷이며, 다른 수컷들은 변두리에 몰려 있다. 움직임일 경우에도 집단은 긴 띠 모양이 되고, 맨 앞과 맨 뒤에 순위가 낮은 수컷들이 선다. 그리고 집단이 흩어질 때는 그들의 음성 전달이 되는 데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집단의 중심부는 암컷들의 혈연 집단에 의해서 몇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암컷들은 스스로 혈연 집단을 배경으로 하여 혈연자끼리 서로 어울려서 살며, 같은 집단에 있으면서도 혈연자가 아닌 것과 사회 관계는 되도록 피하고 있다. 이러한 혈연 집단 안에서도 암컷끼리 순위제가 있고 새끼들은 보통 자신의 혈연 집단 순위를 이어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양반과 상놈의 계급 집단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혈연 집단은 암컷의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커지며, 사람 사회와는 달리 수컷만 태어나는 집단은 커질 수 없다.

수컷의 새끼들은 생후 약 일 년을 지날 무렵부터 놀면서 인연을 맺은 또래 집단, 그러니까 소꿉놀이 집단을 만들고, 2년 반이 될 무렵부터 집단의 중심부와 변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곧 어미 곁을 떠나 변두리의 일원이 된다.

변두리는 수컷들만의 세계이며 그 속에서 사회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순위다. 집단에서 수컷들의 순위 관계를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어릴 때에는 대체로 자기가 이어받은 혈연 집단의 순위를 따르나 4~5세 성적 성숙기와 함께 잠깐 혼란기가 오면 이때부터 저마다의 역량에 따라 순위가 다시 매겨진다. 그리고 우선 어른이 된 뒤의 순위는 아주 안정된 상태이며 엄격하다.

집단의 사회 질서와 통합은 수컷들의 순위 관계에 있다. 순위가 높은 수컷들은 집단을 다스리거나 외적의 경계와 방위에 힘을 쓴다.

그런데 성적 성숙기를 맞은 수컷들 사이에는 집단을 벗어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무작정 상경’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은 대개 3년 반 정도 지난 때부터 일어나며 6~8년이 될 무렵에 가장 심하다. 그리고 이러한 단독 생활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단 집단을 벗어난 개체는 본래의 집단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다가 교미기가 되면 근처의 집단에 다가가서 그 집단의 암컷을 꼬셔낸다. 어떤 것은 다른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방랑 개체 때문에 생긴 ‘새치기’는 때때로 혈족 결혼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주지만, 순위가 높은 수컷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므로 이쪽저쪽 괴로운 노릇이다.

### 계급이 정해져야 싸우지 않는다

네모 당과 세모 당의 싸움은 끝날

줄 모르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한다. 그러나 민의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 아는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구경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야 처음부터 ‘힘의 싸움’을 구경하는 위치에 있으니 도리가 없잖은가. 그저 분명한 것은 빨리 절대자가 나와야만 그 싸움이 끝난다는 점이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쥐는 그들 사회의 계급이 정해지면 싸움이 적어진다고 한다.

‘사우스 워크’라는 사람이 1955년에 보고한 것을 보면, 큰 그릇에 끊임없이 먹이를 주면서 쥐를 번식시키면 그 수가 점점 많아지므로 먹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꾸 싸우게 된다고 한다. 먹는 걱정이 없는데도 밀도가 높아지니까 서로 높은 계급에 오르려고 싸우더라지 뭐냐.

그 싸움의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임신율이 낮아졌는데 그때에 가서야 사회가 차츰차츰 안정되더라고 한다. 사망률이 높아지고 임신율

이 낮아지면 죽은 쥐가 많아지고 태어나는 쥐가 적어지므로 모든 쥐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싸울 상대가 자꾸 쓰러진 뒤에야 비로소 큰 힘을 가진 두목이 나타나고 쥐의 사회가 안정되더라고 한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인간의 전쟁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남미 어느 나라의 정치 싸움을 떠올리는 문체 같기도 하다. 어느 한쪽의 힘이 아주 세면 모두 그쪽에 복종할 것이지만, 서로의 힘이 비슷하면 으르렁거리게 마련이다. 네모 당과 세모 당의 정쟁을 이런 꼴로 분석해도 될 것인지, 그것은 이 글을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겨야겠다.

### 나오리의 웃은 찬란합니다

사람 사회에서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을수록 이름답거나 비싼 사치품을 몸에 지니는 경향이 많다. 또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만으로도 어딘가 다른 데가 있다.

그런데 물고기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아주 뚜렷하다. 다시 말하면 힘이 센 놈일수록 계급이 높고, 또 그런 놈일수록 더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후루타도아’라는 물고기는 힘이 센 놈일수록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노랗고, 힘이 약한 놈일수록 빛깔이 흐리다고 한다.

알을 낳기 위한 사랑의 계절이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들도 싸우는 동안에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오색찬란한 은비늘을 반짝이면서 싸우지만, 싸움에 일단 지면 찬란했던 빛깔은 온데간데 없고 기까지 꺾여서 구석진 곳에서 몹시 분하여 한을 품는다.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뽐내던 나오리도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그 자리에서 쫓기면 한풀 꺾어서 불품없는 못난이가 되는 것과 같다.



물고기에는 사랑의 계절이면 오색찬란한 빛깔을 가지는 종류가 많다. 이런 빛깔을 ‘혼인색’이라고 하는데, 높은 나으리의 혼인색이 더 찬란하다. 그리고 사랑의 계절에 일어나는 싸움은 모두 이 혼인색을 뽐내면서 힘을 겨루는 것임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물고기들의 싸움을 실감나게 구경할 수 있다. ‘웃이 날개’라는 말의 뜻을 이제 겨우 알 듯하구나.

### 힘이 곧 법이다

‘경우가 법’이라는 말을 곧잘 들을 수 있다. 경우에 맞게 어울려 살아가면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되겠고, 까다로운 문장으로 된 법 조문 자체를 비웃는 말도 될 것 같다. 어느 독재자는 ‘내가 곧 법’이라고 말했다지만 어찌하면 그 말이 가장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정권을 잡으면 법부터 고치는 것을 많이 보았던 우리가 아닌가.

항상 고동 꺾테기 속에서 사는 ‘집게’가 있다. 이제 두 마리의 집게의 몸에서 고동 꺾테기를 떼어내고 알몸뚱이로 만든 다음 그 앞에 다른 빈 고동 꺾테기를 가져다 놓으면, 두 마리의 집게들은 서로 자기가 큰 고동 꺾테기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인다. 이때 두 마리의 집게 앞에 꺾테기를 한 개만 놓으면 반드시 몸집이 큰 놈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생명이 없는 쇳덩어리 두 개를 맞부딪쳐도 작은 것이 큰 것에 밀리게 마련이니 몸집만은 크고 볼 노릇이다.

만일 고동 꺾테기를 몸집이 작은 집게 앞에만 놓으면 작은 놈은 거기로 들어가지만, 큰 놈이 그것을 발견하면 작은 놈을 내쫓고 자기가 그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힘이 법의 구실을 한다. 같은 종류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류 사이에서도 힘만이 자기를 지켜준다.

## 약한 자는 꼬리를 감춰라

‘삼십육계 출행랑’이라는 말이 있다. 형편이 좋지 않으면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요즘 학교 둘레의 깡패들 때문에 학생들이 순순히 돈을 떼이고 있다지만 어찌면 그렇게 떼이는 것이 더 현명한 짓인지도 모르겠다. 꼬리를 감추는 개는 덜 물린다고 하지 않던가.

개의 경우, 힘이 약한 놈이 힘이 센 놈의 앞에 앉게 되면 그것은 곧 복종을 뜻한다. 힘이 센 나으리는 의젓하게 서서 앉은 놈을 노려보며 위협을 뽐낸다.

그러나 힘이 팽팽하게 맞먹을 경우에는 서로 꼬리를 수평하게 올린 채로 으르렁거리다가 한바탕 큰 싸움을 벌여서 결판을 낸다. 보통 처음 보는 사이라 하더라도 눈싸움만으로 간단히 해결짓는 수도 있지만, 여

의치 않으면 물고 뜯는 실력 행사를 하게 되지 뭐가. 도사견의 경우는 격투하다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쪽이 패자가 된다. 그 비명은 항복 신호다.

힘이 약한 개에게 알콜 주사를 맞히면 힘이 강해지는데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먹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 같다.

군대 사회에서 ‘거수 경례’의 유래도 따지고 보면 싸울 생각이 없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주먹’은 언제나 싸울 뜻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손바닥을 편다는 것은 저쪽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다. 악수를 청할 때에 손바닥을 펴는 것도 우호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눈싸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손님을 낮은 결상에 앉히고 자기는 약간 높은 결상에 앉는단다. 쳐다보는 사람은 위세에 놀리기 쉬우므로 흥정이 불리해진다는 까닭에서다.

여비서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에 무척 신경을 쓰는 일이 있다. 저쪽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나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혼이 나는 아가씨들도 많다는 이야기도 보면 개들의 꼬리 싸움이나 눈싸움은 웃을 것도 아니잖은가.

일본의 ‘오끼나와’에 있는 ‘투어’의 수컷들은 이름 그대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경우를 보면 저쪽의 실력이 자기와 비슷하게 맞먹을 때뿐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저쪽의 실력을 알고 나면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다. 특히 한 번 진 일이 있는 놈은 강자 앞에서 꼬리를 늘어뜨리고 복종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힘의 차레가 결정되면 싸움이 점차로 적어져서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잡히게 된다. 말하자면 어느 집단의 세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폭력이 날뵈는 것이다.

‘소트테일’이라는 송사리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높은 놈은 굶어도 몸무게가 줄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2~3주일 동안 이어진다. 만일 계급이 높은 놈의 꼬리에 있는 ‘침’을 빼면 그놈은 그 순간부터 계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다시 싸워서 차츰 옛 지위를 회복하기도 한다.

물고기는 대체로 집단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고, 통일된 ‘동시 행동’을 하는데도 그 집단에는 우두머리와 통솔자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인도의 서해안과 스리랑카에 있는 ‘파니오’라는 물고기는 열 마리 안팎이 모여 떼를 이루며 그 떼는 서로의 세력권을 지키면서 다른 떼를 절대로 다가오게 하지 않는다. 그 열 마리 안팎의 떼에는 정해진 서열이 있다지 뭐가.

떼에서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은 머리를 나란히 하고 경주하듯 헤엄을 쳐서 머리 끝이 앞으로 나오는 놈이 승자가 되는 것 같다고 한다. 다른 관찰자의 연구를 보면 체력 실

기 점수로 되지 않으면 지느러미로 치는 싸움을 벌여 힘으로써 서열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싸움에 진 놈이 상위의 나으리와 함께 헤엄칠 때에는 반드시 몸을 경사지게 하여 복종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허리를 굽신 거리는 사람 아부배들의 인사도 복종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들에게는 그 각도만큼 휘어 든 갈고리가 있을 것만 같아서 사람들은 그런 몸가짐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계급이 낮은 ‘파니오’는 머리를 조금 올리고 꼬리를 낮추어서 비스듬히 헤엄쳐야만 나으리를 안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형을 잃은 상태에서 우두머리를 노리는 자리다툼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으니 파니오의 법이야말로 우두머리를 위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서열이 가장 높은 ‘파니오’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언제나 수평한 몸가짐으로 헤엄을 치지만, 2위 파니오는 수평하게 헤엄을 치다가도 1위 파니오를 만나면 꼬리를 밑으로 낮

추어야 한다. 수평하게 헤엄치고 있는 2위와 3위가 서로 만나면 이번에는 3위가 꼬리를 낮춘다. 이렇게 밑의 계급으로 내려갈수록 꼬리를 낮추는 각도가 커지며 꼴등 파니오가 1위를 만나면 몸의 각도는 거의 수직에 가까워진다.

파니오의 계급을 연구한 ‘아돌프 하스’ 교수의 연구를 보면 1위에 대해서 2위는 약 30도, 3위는 약 32도, 4위는 약 38도, 5위는 약 41도, 6위는 약 43도를 그대로 지키며 그 각도를 지키지 않는 놈은 상위 파니오에게 얻어맞는데 그들은 지느러미로 때린다고 한다.

그런데 꼬리를 낮추는 각도를 분석해보면 서열이 낮은 것들끼리 각도는 내려갈수록 차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 차를 보면 1위에 대한 2위의 각도는 30도 정도지만 2위에 대한 3위의 각도는 2도, 3위에 대한 4위의 각도는 3도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아닌 상위자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머리를 숙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지 뭐가. 자기들끼리는 싸우더라도 우두머리한테는 대들지 못하는 까닭이 이런 데에 있었던 모양이구만그러.

### 언어 맞는 차례

작은마누라 여럿을 두었더니 집안에 ‘구라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더라. 치고 박고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못난 어른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더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다. 아무개네 집에서는 큰마누라가 작은마누라에게 쫓겨났다고도 하고, 작은마누라들에게 싸움을 붙이기 위해 마누라 하나를 더 얻어준, 후덕(?)한 본부인도 있었다나?

암탉끼리 쪼아대는 관계를 보면 ①→②→③→④…… 라는 모양으로 힘센 차례대로 되어 있다. 가장 힘이 센 암탉 ①은 다음으로 힘이 센 ②나 ③, ④를 쪼아 대고, 두 번째로 힘이 센 ②는 세 번째로 힘이 센 ③이나 ④, ⑤……를 쪼아 대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러나 쪼아 대는 순서가 반드시 힘이 센 차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에는 약한 ④나 ⑤가 힘센 ③이나 ②를 쪼아 대는 수도 있다지 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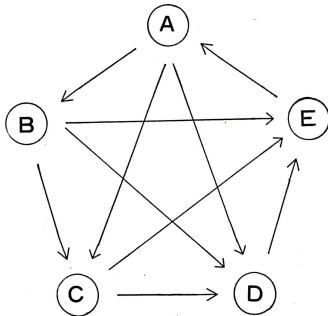
또 때로는 서로 돌아가며 쪼아 대는 삼각관계도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힘센 차례대로 쪼아 대다. 그리고 쪼아 대는 순서는 암탉이 수탉의 사랑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때로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힘센 것을 쪼아서 암탉의 우두머리가 되는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다른 암탉에게 구박만 받고 오금도 못 쓰던 암탉이, 우연한 기회에 힘이 세고 활발한 수탉의 사랑을 받게 되면 갑자기 힘이 세져서 자기를 괴롭혔던 암탉을 때려눕히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오래간만에 귀여움을 받더니 우쭐해지면서 세도를 부려 보는 것이지. 처음 왔을 때에는 큰마누라에게 머리채까지 잡혀 가며 구박 받던 작은마누라도 요런조런 재간을 부려 남편의 사랑

을 독차지하게 되면 사정이 뒤바뀌는 양반네 집이 많지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뒷배’도 이것과 통하는 말인 모양이다.

같은 떼에 속한 쥐라면 어느 한 놈만이 다른 모두를 물어뜯고, 그놈을 빼 다른 놈들 사이에는 싸움이 별로 없다고 한다.

가장 힘이 약한 쥐는 오래도록 잘 먹이면서 쉬게 한 뒤에 다른 쥐를 공격하게 해서 이기게 하면 본래의 떼에 돌아가서도 힘이 센 쥐가 된다. 경험과 용기가 지위를 높여줄 때가 있다 그 말이다.



▲ 닭의 순위의 직선된 관계 그림.

## 덧세

동물들의 계급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덧세’다.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동물들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곳에 낯선 놈이 나타나면 그것과 싸우면서 못 살게 군다. 사람의 아이들도 골목에서 낯선 어린이를 보면 공연히 시비를 걸면서 짓궂게 놀거나 때리기 일쑤지 뭐냐. 시골 양반네들이야 더 심하지.

낯선 고장에 나타난 놈은 보통의 경우 자기보다 약한 놈에게도 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낯선 고장에 가서는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것은 힘보다 정신력에 관한 문제다.

두 마리의 ‘아메리카카멜리온’을 길러서 이들에게 싸움을 붙이면 몸이 무거운 놈이 이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먼저부터 그 사육 상자 속에서 살던 놈은 나중에 들어온 놈보다 몸

이 가벼워도 나중에 온 놈에게 거뜰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몸이 가볍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몸이 커도 마음이 불안한 놈보다 우세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삶(살행이)이 자기의 집을 공격해 온 큰 삶을 무찌를 수 있는 것도 먼저부터 살고 있었다는 ‘덧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세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집혀진다. 이런 현상은 사람의 아이들 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학해 온 키 큰 어린이가 처음에는 키 작은 동급생에게 놀림도 받고 구박도 당하는 수가 많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 사정이 거꾸로 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닭은 가장 힘이 센 수탉이 다른 수탉과 암탉 모두를 지배하게 된다. 모든 암탉들은 가장 힘센 수탉을 섬기게 되고, 다른 수탉들은 기가 죽어서 고분고분 복종하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암탉들 사이에도 암탉대로 계급이 있다는 점이다.

\* 미승우 선생님의 글에는 어려운 단어 나 ‘-적, -성, -당, -시’를 쓰지 않으셨지만, 가끔 ‘-에의, -(으)로의, -에서의, -(으)로부터, -에 의해, -에 의하면, -을/를 통해’와 같은 잘못된 일본 말법이 들어있습니다. 사자성어를 풀어 적은 것처럼 다 고쳐볼까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이 드물기에 굳이 필요하면 조심스럽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우리말지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 아마존

홍석화 우리말겨레모임 회원  
지은책으로 《한국의 토종101가지》, 《한국의 토종기행》,  
《토종문화와 모듬살이》, 《청산에 살어리랏다》가 있다.

### 제9절. 동그란 집

앞에서 야모마미 주거공간의 핵심인 shabono에 대해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동그란 집은 아마존 원주민 마을에서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자, 우선 사진을 좀 살펴보지요.



이를테면 「로마」의 콜로세움이  
나, 마야, 아즈텍 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동그란 집은, 아마존 밀림 속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거벗고 사는 「미개한 야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동그란 집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 「슬픈 열대」의 석학 「레비 스트로스」가 일찍이 알고 있던군요.



이 <원형의 거주형태>는 보로로 족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다스가르사스 강 지방의 살레지오회 선교자들은 보로로 족을 개종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부락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오두막들이 평행으로 열을 이루는 다른 주거지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을 즉각 깨달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 및 종교체계(뒤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 양자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형태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들을 확신시켜주는 그와 같은 구성 체계 없이는 그들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들의 전통에 대한 모든 감정들도 잃어버릴 것이다.

- 슬픈열대. C. 레비-스트로스.

1998년. 한길사. 413~415쪽

우주는 늘 유량의 길을 떠나는 우리들을 에워싼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이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은 둥글다.> 우리가 끝이 없을 심연 속을 내려다본다면 그 역시

<둥글> 것이다.

- 8월 24일 헨리.D.소로우의 일기.

2003년. 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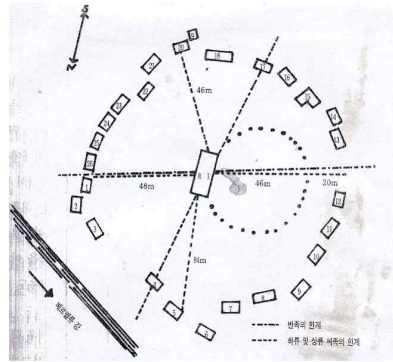
레비 스트로스가 말한 보로로 족은 볼리비아와의 경계지역 인근의 부족이고, 야노마미 족은 베네수엘라에 걸쳐 사는 부족입니다. 싱가포르와는 엄청난 거리이지요.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길이의 2배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굳이 몽골리언 길로 말하더라도, 수천 년~2만년여년에 걸쳐 이주하면서 살아온 수많은 갈래의 부족들과 언어들 다양함…….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애기한 「사회-종교체계」의 가장 깊은 뿌리. 선교사들이 그토록 때려 부숴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정신……. 삶의 모든 원주민이 돌고 돌아가 간 곳은 바로 저 히말라야 수미산 Cora일 터입니다.

우주만물의 시작과 끝-조상들의 영령과 늘상 함께 하는 「중앙광장」은 그 어느 집에서 내다봐도 다 보이고, 각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거의 다 똑같죠.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인 「가운데」는 「정신세계의 뜻이 쏠리는 곳」이죠.

우리나라 강강술래도, 북미 인디언의 \*파우와우(pow-wow)도, 수피댄스도 모두 동그랗게 도는 운동입니다. “「동그라미」는 안과 밖으로 힘을 휘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자신



▲ 케자라 마을의 평면도

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계속 돌면서 하나의 소용돌이 곡선을 만들어 낸다.”는 한 「유콘-인디언」의 말처럼, 동그라미는 바로 아미존 원주민들이 몸속 세포에 들어있는 「DNA의 나선구조」와 똑같은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동그란 집」은, 원주민에게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조화로운 마음씨를 지니게 했을 터입니다.

한번 보기를 들어볼까요.

#### \* pow-wow

- 북미 인디언들의 전통적인 연례축제이다. 참가한 사람들 모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하염없이 노래 부르며 돌고 또 돌아가는 마당이다.

이렇게 △나 □꼴로 집들을 짓고 살았다고 가정해보지요.

긴 말이 필요 없지요.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하고, 뭔가 아귀가 안 맞고, 어쩐지 이래저래 몸뚱이가 삐그덕 거리는 것 같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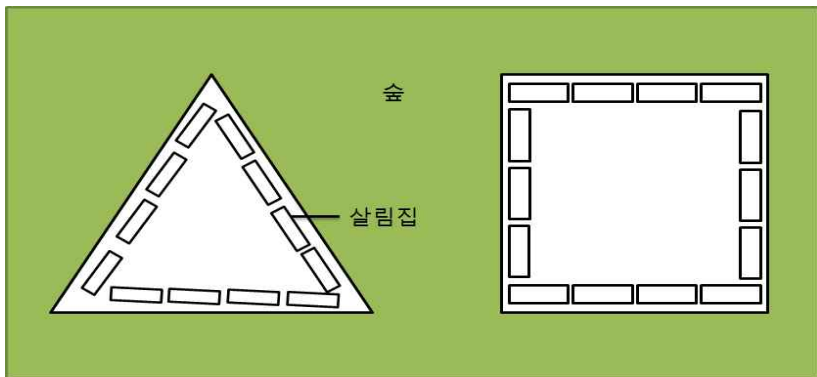
어울리지 않아서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구태여 문자를 쓰자면 바로 이 동그라미가, 아마존 인디오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평등의 「무정부 자유」의 본 모습이기 때문 아닐까요?

기실 이들 세계에서 본디 「추장」이란 있지 않았다는 학설도 꽤 믿을

만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여년에 걸친 유럽 침탈자들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항상 「유럽인」들은 「야만인」들의 「대표자」하고만(협상과 전달할 일을 알릴 사람으로) 다가가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싸움에서, 자연스레 「추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측면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요. 헌데 그럴 경우에도 일단 전쟁 끝나고 나면 일상 생활로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무슨 특별한 「권위」나 「권력」



같은 「억압」은 거의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sup>1)</sup> 조금 각별한 능력의 원천은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말>을 함으로써만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이죠. 그렇다고 「재산」을 비롯한 특별한 물질 혜택이 주어진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 권위의 원천인 「말」이 었나가거나, 공평하지 못할 땐, 가차 없이 추장을 바꿔 버렸다는 거죠.

아마존 원주민들의 「동그라미 사랑」에서, 저는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를 말로 아울러 나타내기에는 힘들고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이라면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짧은 열정과 오래된 관습」이 서로 섞인 것을 읽어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온 우주의 중심과 기원은 크나큰 하나-원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미 세상을 건너간 「조상님」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중앙광장」의 땅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어찌 보면 그

것은 중앙광장의 「허공」에 “텅 비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있기도 하고 텅 비어 있기도 한 「텅 빈 층만」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루하루 우리들 일상과 함께 있으면서도, 실체는 없는 그런 것이지요.

끝내는 우리 저마다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하나’라는 것. 사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아주 평화스럽게 남과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아닐까요?

### 제10절. 「검은 흙」의 사람들

아마존 원주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의 모두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지요. 따라서 이들은 정글 속을 누비며 하염없이 떠돌아다니기만 했던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의 “들어가기도 차 두려운” 정글도 거의 <약 2/3>가 ‘사람의 손길’로 다듬어져 왔던 「인

1) [P. 클라스트르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참조]

간이 만들어낸 숲'이라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야생의 정글」이라는 신화 속에도, 인간의 힘- 손길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보기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목민의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특히나 '농치고 싶지 않은 먹을 것이 되는 식물'을 알게 되었고 이를 꾸준히 가꾸어 '부족 모두의 주식'으로 쓰고자 할 때, 이들은 '텃밭'을 가꾸었다는 거죠. 가령 옥수수나 카사바, 아싸이-베리나 우루콩……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봄철에 심어놓고 유목생활을 하다가, 수확철에 맞춰 '텃밭'으로 돌아와 한동안 '먹을 것'을 갈무리 해놓고는, 다시 유목생활을 하는 식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하고 점점 텃밭이 넓어지면서,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농업의 선구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왔고, 콜럼버스가 오기 이전까지 남미지역의 땅 중에 2/3가량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검은 흙」이었다는 겁니다.

경작자와 숲의 구분이 힘든 잉가노 마을을 관찰하다보면, 잉가노 족이 많은 야생약초와 식용식물을 재배작물처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잉가노 족의 경작지에는 작물과 야생식물과 잡초가 함께 있다.

오랫동안 많은 서양인들은 우림을 자연 그대로의 특별한 생태환경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영토에서 발견되는 생활방식을 보면 <원주민들의 숲은 사실상 서로 다른 생태환경>이고…… 수백 년간 원주민들의 손길로 관리되었다…… 주민들은 숲에서…… 생태환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다. 이렇게 인간과 숲이 더불어 사는 풍경은 <만들어낸 숲 또는 인간의 숲>이라 부를 수 있다.

-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게리. P.나브한 2010. 아카이브 240-241쪽

‘콜럼버스’ 유럽인들의 침략 물결로 이 검고 기름진 어머니-땅은 파괴되고, 저 커다란 「산업 시대」는 지

금 이 순간까지도 지속·유지·개발 되어 「벌목 → 화전 → 콩과 소」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일본의 <농부 철학자> 「후꾸오 까-마사노부」가 생각나는군요. 그는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럽의 땅은 이미 죽어있는 땅이다. 오랜 기간 왕에게 바칠 포도주와 소고기를 키우는 데에만 너무 매달린 결과이다. 이를 본바탕부터 뒤바꾸지 않는 한 유럽의 땅은 그 본모습을 되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아마존 원주민들에겐 포도주와 소고기가 필요 없었지요.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텃밭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들의 텃밭은 「퇴비」와 「숯」으로 푸짐한 검정흙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텃밭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아마존은 <기름진 숲 → 검정흙 → 풍성한 동·식물이 살아남> 이렇게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생태」로 「공진화」하게 된 거죠.

검은흙(Terra preta)은 아마존 땅의 적어도 10%를 덮는데, 이는 프랑스만한 크기이다. 그것은 놀라운 성질들을 갖는다. 적도 강우는 검은흙 밭에서 영양분들을 거르지 않는다. 역으로 그 토양이 받아내는 것이다.

Painted Rock Cave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60cm 검은흙 층의 300에이커의 지역민들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파는 장소가 있는데, 그 층 아래의 1/3은 결코 파내지지 않는다. 일꾼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60cm의 두께를 갖는 본디의 층을 다시 창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검은흙이 「고갈」에 맞서는 특별한 미생물들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짐작컨대 어떤 문턱 수준에서, 검은흙은 영속화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심지어 자신을 재생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생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초유기체처럼 행동한다.”

- wiki, Terra. Preta.

Chales.c.Mann: interview

「가이아 이론」이 아니더라도 어

느 정도 흙과 함께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흙이 살아 꿈틀거리는 존재」라는 걸 쉽게 알아차리기 마련입니다. 검은흙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점점 더 푸짐해지고, 점점 더 땅 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양학자들은 검은흙(테라 프레타)이 BC 450년에서 AD 950년 사이에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한다. 이는 지표면에서 2m 가량 내려가 있는데 일년에 1cm씩 자란다.

아마존 지역의 나무들이 완전히 자라는데 평균 10년 걸리지만 이 지역에서는 빠리는 6개월 만에 다 자란다. 평균 3배나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검은흙을 배양토로 팔기도 한다.

검은흙의 가장 큰 특성은 <‘숯’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주변 지역의 흙에는 0.5%인 반면에 검은흙에는 9%까지 섞여 있다. 땅속의 지렁이가 숯을 영양이 풍부한 흙으로 부수어 된 것이라는 가설이다. 검은흙에는 숯과 오래된 도기조각, 식물 폐기물, 동물 배설물, 생선

이나 다른 동물의 뼈 등이 섞여 있다. 무기물질로는 나트륨, 인, 칼슘, 아연,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미생물 활동이 어느 지역의 흙보다 활발하다. <숯에 있는 많은 기공들>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배수를 돕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한국에너지신문 -14. 6/10

테라 프레타는 기후변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숯」이지요. 제가 한 십여 년간 「숯 진도사」노릇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가슴 속에 지니고 있던 명제는 “숯과 똥이 막다른 지경에 와있는 사람을 살린다.”였습니다. 풀과 나무가 생명을 다해 숯으로 변하고, 동물이 먹은 음식의 마지막 산물인 똥과 섞여지는 <끝+끝>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지구의 싹이 움트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물음을 붙들어 안고 있었던 거죠.

토양 과학자 크리스토프 슈타이너가 조사한 것을 보면, 인디언들은 ‘나무를 베어 태우기’가 아니라 ‘나무를 베어 굽기’라고 이름 붙여 놓고 검은흙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옛 인디언 농부들은 유기 물질들을 아주 연소시켜서 재를 만드는 대신, 불완전 연소로 숯을 만들어 내어 이 숯을 흙에 섞었다.

‘나무를 베어 굽기’는 흙에도 이득이 되고 나무를 베어 태우는 방법보다 훨씬 적은 양의 탄소를 내뿜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있어 많은 의미를 지닌다. 나무들은 줄기, 가지, 잎에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저장한다. 나무가 죽거나 사람이 나무를 베어내면, 탄소는 보통 대기 속으로 빠져나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일본의 간사이 환경 공학 센터의 마코토 오가와가 한 실험에서, <숯은 최고 5만 년까지 흙 속에 탄소를 지닌다>는 것이 드러났다. “나무를 베어 굽는 것은 매우 영리한 방법”이라고 오가와는 내게 말했다.

- 찰스만. 인디언. 445-446쪽

현명한 아마존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커다란 숲을 파괴하지 않으며 써왔고, 그들의 기술에 대해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인디언들은 환경 문제에 마주하면 그 문제들을 바로잡았다. 또 자연에 적응하는 대신, 새로운 자연을 창조했다. 그들이 아마존의 땅을 새롭게 형성하는 와중에 콜럼버스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모든 노력들은 오래도록 세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유행성 전염병이 그 핵심종을 없애 버린 것이다.

- 상동. 456-457쪽

헌데 놀라운 사실은, ‘콜럼버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과부신세’가 된 아마존에 지금까지도 이 검은흙을 부여안고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 부족이 가려진 실낱처럼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카야포족 이지요, 카야포 족이 나무가 없는 사바나 지역에서 숲의 섬을 살리는 전통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



계를 밟습니다.

- 땅에 떨어진 잎과 가지들을 모아서 퇴비 더미에 쌓는다. 그것들이 썩으면서 흩어지면 막대기로 두드려서 부드러운 퇴비가루를 만든다.

- 나무를 심을 사바나 지역으로 그 퇴비를 나른다. 빗물에 땅이 유실될 우려가 적은 점시처럼 움푹 들어간 땅이 좋다. 흰개미와 개미집에 있는 흙 부스러기들과 퇴비를 함께 뿌리고, 살아 있는 흰개미와 개미도 약간 뿌린다(개미집에서 나온 흙부스러기는 기름지다. 카야포 족은 서로를 싫어하는 곤충들은, 서로 열심히 싸우느라 새로 심은 나무의 연약한 싹을 상하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 이렇게 퇴비와 섞은 것을 1~2야드의 넓이에 1피트 정도의 깊이로 땅 위에 덮는다. 이 기름진 땅에 근처 열대우림에서 캐온 여러 야생 식물들을 심는다.

- 그 뒤 몇 달 동안 카야포 족 사람들은 밭에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작은 숲의 섭(아페트

누'라고 부름)에서 자라는 어린 식물들을 잠깐씩 보살핀다. 그들은 이 숲 들레에 꾸준히 나무를 심어 숲의 면적을 넓히고 식물도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때가 되면 '아페트누'는 아페테가 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작은 숲의 섭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 야생 종자들이 퍼지고, 다른 자연 현상들의 영향을 받아 커다란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진정한 아페테로 발전한다. 카야포 족이 심은 야생 관목들과 덩굴들은 이렇게 숲으로 널리 퍼진다. 이 숲은 카야포 족에게 필요한 음식과 연료, 약재들을 제공하고, 카야포 족은 여기서 수백 종의 뿌리와 잎, 열매들을 거둔다. 약 250종의 야생 과일과 650종이 넘는 약초들을 열대우림에서 얻는 것이다.

이 아페테는 오랜 세월 동안 10년마다 몇 에이커씩 면적을 넓히면서 다른 기능도 한다. 다 완성된 숲의 섭들은, 카야포 족 사냥꾼들의 집 가까이에서, 중요한 사냥감인 새와 포유류들의 집이 되어 준다. 또한 이 숲들은 다른 부족들과 전쟁이 났을 때 방어벽 역할을 한다.

- 생명은 끝이 없는 길을 간다.

188~189쪽

이 뒤로 이리저리 짓밟힌 아마존은 <별목하거나 고무나무 심거나 금광채굴 → 사료에 들어갈 콩 재배>로 많은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검은흙마저 사라지고 「지상의 허파」는 끄끙 신음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형편인 거죠.

길고 긴 사람의 문명 역사에서, 그 지역의 「커다란 자연의 크나큰 힘」을 무시한 「사람의 탐욕」은, 꼭 멸망할 것이라는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래도 좀 더 힘을 갖는 나라로 나아가자는 이 허황된 <슬픈 세월>은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2)

“아마존에 대한 기본 사실은, 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환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겪으며 이를 써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환경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집단은 모두 죽게 되어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들이 알게 된 지식은 사상과 행동 양식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 인디언. 찰스만(charles.C.Mann).

2005년, 오래된 미래.

사람의 진정한 유산, 인류를 그 과거와 이어주는 고리, 사람의 종교와 의식, 노래의 근원이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신비로운 사유지에서 밀려나 더 비천한 세계로, 그 어떤 미덕이나 고결함도 찾아볼 수 없는 비천한 세계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진정한 사람다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가 아니라 「성취해내는 것」이다. 오로지 땅으로 우리는 삶의 신비를 공유하고, 이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 앞으로 그렇게 할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될 것이며, 이것으로 사람의 평화와 기쁨이 가장 충만한 경지에 다다를 것이다.

- 헨리 베스톤 Henry Beston,

약초와 대지 Herbs and the Earth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2) J. Diamond, 문명의 붕괴 참조

##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조언년 우리말겨레모임 간사

### 옛날농사법(유기농법)

J.I 로데일

복음출판사, 최병철 옮김

### 제4장 식물뿌리의 표면 또는 뿌리 속에 들어가 식물과 더불어 사는 세균(균근균)

우리는 흙(토양) 세균과 지렁이가 흙(토양)의 기름짐(비옥도)을 높이며 이를 그대로 지키려는(유지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물 키우기에(생육에) 크게 이바지하는(공헌하는) 제3의 요인은 흙(토양) 속에서 생겨나는(발생하는) 이주(극히) 작은 균류이다.

옛날(과거의) 생물학자는 식물의 뿌리가 자잘한(미시적인) 균류로 인해 병

이 옮겨진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일 반으로 이 균류는 식물에게 대하여 붙어 살거나(기생적인) 또는 서로 맞서 싸우는(경합적인) 것이며 해로운(유해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연구와 실험을 한 지금의(현대) 흙(토양)학자와 생물학자, 주로 영국인은 이들 균류가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붙어살려는(숙주인) 식물에게 봉사하며 실제로 그 식물의 조용하고 풍성한 생활에 빨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발견하였다).

윌리엄 박사는 ‘식물교과서’에서 균근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설명하고) 있다.

“어떤 자그마한(소형의) 균근은 많은 식물 유달리(특히) 흙이 잘 썩는(부식성) 곳에 자라고 있는 식물의 뿌리

끝에 붙어서 생겨나며(발생하며), 뿌리 둘레(주위)에 균의 몸을 이루는 섬세한 실 모양의 세포(균사체의 실로)로 촘촘하게 뒤덮여 있는데 그것이 뿌리 털의(근모의) 역할을 한다. 이 균근은 물과 무기물을 빨아들여(흡수하여) 그것을 뿌리로 옮기는 일을(작용을) 한다. 또 균근은 잘 썩고(부식) 잘 나뉘어(분해) 떨어진(분리된) 녹아든(가용성) 유기물도 빨아들여(흡수하여) 다시 식물의 성장을 돕는다고 믿는 몇 가지 까닭이(이유가) 있다. 이렇게 합쳐진(결합) 관계는 균류와 종자식물의(현화식물과의) 양쪽에 이롭다는(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생물이 합쳐진(결합) 관계에서(에 의해) 이익을 얻는 한 가지 보기를(예를) 볼 수 있고(있으며) 이것을 더불어 산다고(공생이라고) 부른다.

균근은 기생물이 아니다. 균근은 식물의 뿌리에서 먹을 것(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는 친구이다.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균근은 둘레(주위)의 흙(토양)에서 먹을 것(식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한다. 균근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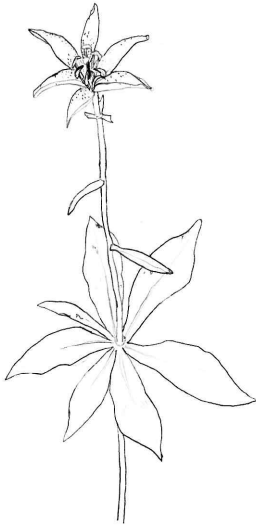
크게 두 가지(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뿌리를 싸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뿌리의 세포에 들어가는(침입하는) 것이다.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빌헬름 페퍼 교수는 1877년 뿌리와 균근의 더불어 사는(공생) 관계를 가리킨(지적한) 맨 처음(최초의) 사람이다. 여러 해 동안(다년간) 균근의 현상을(에 관해) 연구한 또 한 사람은 독일 식물학자 후랑크 박사이다. 그밖에 두서너 연구자도 있었지만 대체로(비교적) 요즘(최근)까지 모든(전체) 논체가 식물학(적) 연구의 언저리에(범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에는(초기) 연구자가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기록으로(문헌으로) 남기지 않았는지. 균근의 균사가 자라는(생육) 마지막 과정은(최후과정에는) 뿌리로(를 통해) 식물이(에 의해) 빨아들인다는(소화흡수된다는) 것이었다. 그 균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아주(대단히) 풍부하다. 때문에 소화된 산물은 수액 속에 들어가서 식물이 잘 무르익기를(성숙을) 돕는다.

레이너 박사와 그의 조수인 키레

비손 박사는 여러 해 동안(다년간) 런던의 벵퍼드대학과 돛셋트주의 워레함 숲에서 균근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알버트 하워드경과 간카이(밀접하게) 힘을 모아(협력하며) 연구하였다. 그것은 하워드 경의 연구가 이런 종류의 균류 힘과(작용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말나리꽃

나무(수목) 키우기에(생육에) 있어서 균근과(과의) 합쳐짐(결합)에 관한 레이너 박사의 연구는 숲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임화상에) 지금까지와 다른(획기적인)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질 것이다.

하워드 경은 그의 저서 ‘농업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균근과(과의) 합쳐짐(결합)은 기름진(비옥한) 흙(토양), 잘 썩은(부식된) 흙(토양)과 곡식(작물)을 바로 이어서(직접 시켜서) 쓸(사용될) 수 있는 먹을 것을(식물) 흙(토양)에서 식물로 옮기는 다리(교량)이다. 이 합쳐짐(결합)이 식물의 푸른 나뭇잎(녹엽)이 가진 힘에(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지금(현재) 과학이 연구해야 할 가장 재미있는(흥미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푸른 나뭇잎(녹엽) 안에서(내에서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효과 있는(효과적) 합성은 이들 흙(토양) 균류가 소화해서 생긴 것에(소화생성물에게) 기대고(의존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들이 소화해서 생긴 것은(소화생성물은) 병을 잘 이겨내는 것이나(내병성이나) 품질에 관련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만일 이것

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의(인류의) 건강과 행복은 이 균근이 함쳐진(결합) 관계의 효과에 영향을 있다(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된다).”

여러분 중에서 석남화 따위(등) 상록수를 옮겨 심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옮기기(이식하기) 전에 흙(토양)을 깊이 파서 심고, 해가림도 해주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고 의심 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이유는) 균근에 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옮기게(이식하게) 되면 함쳐져(결합되어) 있었던 뿌리와 균근과(과의) 관련이 끊어지고, 새 흙에서는 그런 관계가 곧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산에서 자연스레(자연적으로) 나서 자란(생장한) 나무의 뿌리를 캐면 2인치 (in) 보다(이상) 깊은 곳의 흙은 섬유가 많고 이탄 이끼와 같은 가벼운 조직이며 잿빛 곰팡이가 가득 찬 가량일 썩은 흙(부엽토)이다. 이 층에는 나무의 윗뿌리가 많지만 옮길(이식할) 때 여러분은 이 가량일 썩은 흙(부엽토)을 버리고 만다. 그것이 귀중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혹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옮긴(이식한) 나무에 해가림을 해준다면 아마 뿌리내려 사는데(발착시키는데)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무와 함께 그 나무에게 친한 균근균을 옮기는 것임으로 적당한 해가림을 해주고 흙(토양)관리를 잘 하면 새 흙에 옮겨져도 함쳐진(결합) 관계가 줄곧(계속) 되기 때문이다.

퇴비를 주면 흙속의 균근이 자라는 것을(생육을) 앞당긴다는(촉진한다는) 사실이 퇴비 쓰자고(사용을) 주장하는 가장 큰 까닭(이유)의 하나이다. 그것은 발퍼워 부인이 레이너 박사나 하워드 경의 업적을 분석하여 기리키 듯이(지적하듯이) “퇴비 또는 많은 마구간 똥(구배)으로 키운 곡식(작물)은 화학비료로 키운 것에 비해 균근이 퍼지기(번식이) 참 좋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다.

알버트 하워드 경이 “인돌” 식물 산업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식물과 균근의 함쳐진(결합) 관계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된(발견한) 것은 1937년 이었다. 그는 식물이 화학비료로 키

워진 것은 “균근과(과의) 합쳐짐(결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주하)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발견하였다). 그는 균근이 매우 불기 쉬운 채나무에서 충분히 썩는(부식이 있는) 곳에서도 화학비료를 준다면 균근이 아닌 기생(적) 균류가 늘어난다는(중식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는 이점을 시험할 목적으로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사탕수수의 뿌리를 조사하는데 어떤 수단을 썼는지 말하고 있다.

“재료는 인도, 루이지니아 그리고(및) 나타르에서 가져왔다. 모두 균근의 합쳐짐(결합)이 있었다. 나타르에서 보내온 많은 재료는 화학비료만으로 키운 것, 흙이 잘 썩은(부식만의) 것, 그리고 양쪽의 것으로 키운 것이었는데 흙이 썩은 곳에서(부식으로) 키운 사탕수수는 많은(다수의) 균근이 생겨나고(발생하고) 사탕수수의 뿌리 는(에 의한) 균의 소화가 빨랐다. 화학비료로 자란 사탕수수의 경우는 이 합쳐짐(결합)을 떼어 버리든가 아니면 뿌리에(에 의한) 균의 소화를 방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결과는 유기질비료에서 화학비료로(에의) 바뀐 은(전환은) 사탕수수의 병에 원인이며 그 품종이 전보다 못해진(쇠퇴) 원인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곡식(농작물)이 균근과 합쳐짐(결합)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밀(소맥), 감자, 알팔파, 차, 콩, 사탕수수, 바나나, 딸기, 담배, 짚승주는 풀(목초) 그 밖의(기타) 많은 것에 대해 조사하여 왔다. 난초는 어린 모종일 때에(유묘 시에) 높은 비율의(고농도의) 설탕 또는 화학약품을 준다고 하는 어떤 인공(적) 조건이 아닌 한 균근의 도움 없이는 키울(생육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흙(토양)의 썩음(부식)이 풍부할 때에만 균근이 잘 크고(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지적하고) 있다. 폴 박사는 ‘식물생리학통론’에서(에 있어서) “푸른 식물과 균근이(과의) 더불어 살고(공생적) 합쳐지는 것(결합)은 그것들이 썩으면서(부식 속에서) 자랄 때에만 모양을 이루며(형성되며) 흙(토양)이 썩으면 썩을수록

(부식에 풍부하면 할수록) 잘 자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워드 경은 수년 전 불란서의 포도가 나는(생산) 땅(지대)을 여행 중에 중앙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건강한 포도나무를 꼼꼼히(유심히) 찾아보았다. 오랫동안 찾아본 결과 몇 곳의 보기를(예를) 알게 되었다(발견하였다). 그는 그곳 여주인을 찾아가서 거기에서는 천연 화학비료를 쓴 일이 없고 더구나 포도주의 품질도 아주(대단히) 평판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뿌리를 조사하여 균근과(과의) 합쳐진(결합) 관계를 알게 되었다(발견하였다). 아시아의 포도와 꼭 같이 농장에서 만드는 유기질 비료로 기른(재배된) 것이며 병은 조금도(전혀) 없었다.

아이오와주립 농사시험장의 콧교수는 그 뿌리에 균근이 붙어 있지 않다면 새 자리(장소)에 옮겨온(이식한) 소나무 묘목을 자리 잡게 할 수 없다는(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발견하였다). 그는 또 균근을 갖고 있는 묘목은 그것이 없는 묘목에 비해 4

배의 인산을 들어(함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균근의 힘이(작용이) 그대로는 식물에 쓰지(이용) 못하는 인산을 잘 녹는 성질(가용성)로 만드는 것을 증명하였다.

서 오스트리아 종묘원 직원들은 새 종묘원에 묘목을 심어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 흙(토양)에 낡은 묘판(묘상)의 흙을 비료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여 묘목에 균근을 넣어준(접종시킨)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1944년 4월 15일의 ‘뉴스 크로니클’ 이스터부룩크의 논문에서 뽑아낸(발췌한) 것을 여기에 소개한다.

“위례함 히스는 어떤 곡식(작물) 기르기에(재배에도) 적당치 않은 토지이다. 그것은 ‘하디’의 소설 <에그돈 히스>이며, 토머스 하디는 그 심한 아무런 발전이나 결실이 없는 성질을(불모성을) 묘사하여 마치 사람의 힘으로는(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의 힘(인력) 때문이라고(에 의한다고) 하



기 보다는 여성과학자 레이너 박사의 연구에서(에 의해) 바뀌지게 되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곤란이) 있다. 날씨(기후)는 사납고 히스 벌판(원야)은 절반 넘게(태반은) 물빠짐이(배수)가 어렵고(곤란하고) 흙(토양)은 매우 메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좋은(유익한) 흙(토양)균류의 키우기에는(생육에는) 해롭다.

레이너 박사의 고민은 이들 균류가 퍼질(번식) 수 있게(가능하게) 하려면 흙(토양)을 어떻게 고쳐야(개량)하는가였다. 그녀는 여러 가지(각종) 퇴비를 시험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뽕나무과의 나무(흡)의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양조박)와 동물의 피를 말린 가루(혈분)로 만든 것이며, 다른 것은 짚과 동물의 피를 말린 가루(혈분)로 만든 것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다른 재료는 고사리, 히스 톱밥이다. 류산암모니아와 같은 인공비료는 퇴비를 대신할(대용) 수 없다. 그것은 균류의 자람을(생육)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인

조비료의 한 부분(일부), 이를테면(가령) 과린산 석회(나무의 목숨에 위협하다는(치명적)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지만 적당한 퇴비를 쓰면(사용하면) 와레함 히스일지라도 나무는 넉넉히(충분히) 키우는(생육하는) 것이다.

나는 실험지에서 그 종자가 퇴비와 함께 뿌려진 소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힘이(성장력이) 힘차서(왕성하여) 높이가 15자나 자란 것을 보았다. 이들 나무의 둘레(주변)에 퇴비 없이 뿌려진 것들은 가느다랗고 약하며 높이도 몇 인치(in)뿐이었다(불과하였다). 영국은 이미 와레함 히스에서(에서의) 연구로 얻은 새 지식으로 세계에서 으뜸이지만 더욱 진보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무가 우거진(삼림) 모든 곳에(전체에) 퇴비를 준다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히스 땅(지대)의 모밭(묘포의) 모관(묘상)에만 퇴비를 주고 그 묘목으로 나무 심는(식목하는) 것의 효과를 시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까지로는) 성공하고 있다.

메마른 흙에서도 퇴비를 넣는 모

밭에서(묘포에서) 자란 묘를 심은 곳은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주변에 심은 퇴비 없는 보통 묘목에서 자란 묘를 심은 곳은 이주(대단히) 작고 보잘 것 없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레이너 박사의 방법은 히스의 메마른 땅에서 해보는 것이 보통 농사짓는 땅에서(농토에서) 하는 것보다 성적을 올리고 있다. 만일 묘목이 흙(토양)과 균류와의 합쳐진(결합) 관계로 되기 위해 작은 뿌리를 뺀어 스스로 영양을 찾는 것을 모밭에서(묘포에서) 얻는다면 이 습성을 일생동안 언제나(계속) 지켜(유지하여) 위태함처럼 나쁜 땅에서도 영양을 빨아들일(흡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나무가 우거진 숲(삼림) 수천 에이커 대신에 2~3에이커의 모밭에(묘포에) 퇴비를 줌으로 넉넉하기(충분하기) 때문에 경비와 노력을 아낄 수 있다(절약은 매우 크다).

레이너 박사는 이 연구는 나무에 관한 것만이라는 것을 힘써 말하고(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뿌리와 균류의(와의) 힘(작용) 원리가 알려지고 모든 식물계로 넓어질(확대

할) 것을 알아야(발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 보다 좋게, 보다 올바른(진실한) 곡식(농작물) 그리고(및) 채소곡식(원예작물)을 기르도록(재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흙(토양)에 화학비료를 끼게(농후하게) 뿌리는(살포하는) 것이 먹을 거리(식물) 생산에 자연을 힘을 모으는(협력시키는) 방법임을 굳게 믿고 있는 학파는(에게는) 역시 반대할 것인가?”

하워드 경의 커다란(대규모) 퇴비농법에 관한 폭넓은(광범한) 연구는 차, 커피, 바나나, 포도, 목화, 딸기, 곡물 그리고(및) 콩류와 같은 많은 여러 곡식(농작물)을(에 관한) 관찰하여 농가에서는(에 대해서는) 균류의 가치를 가리킨다(지적한다). 그와 동시에 농사시험장에서는(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곡식(농작물)에 관해 균류의(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또 동시에 식물생태학과 흙(토양)생물학의 운(전) 영역을 조사하는 일의 필요성을 가리키고(지적하고) 있다. 레이너 박사, 하워드 경 그리고(및) 다른 학자들의 연구

는 빛나고 앞섰으며(선구적이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모름지기 아직 더 많은 연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 제5장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

이주 작은(미소한) 흙(토양)균류의 한 가지로(일종으로) 그 활동 테두리외(별위외) 생활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나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며 바로 힘을 주거나(직접) 건너 건너 힘을 주거나(간접) 아무튼 큰 역할을 이겨내주고(감당해주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아울러 요즘(최근) 의학계에서 큰 화젯거리로 나타난(등장한) 것이 바로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이다.

수십 년 전에 관찰력이 날카로운 (예민한) 미국인 과학자 알렉산드 후래밍 박사 덕분에(에 의해서)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가 미생물을 기르는 기구외(배양기외) 닳았을(접촉하였을) 때에 그 둘레에 뚜렷한 빈곳(공소)이 나타나 있음을 알게(발견하게) 되었으며 그의 호기심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흙(토양)미생물에서 내보내는(분비되는) 물질임을 밝혀냈는데 그 물질이 바로 놀라운 힘을 가진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였던 것이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200만 배의 물에 물게 하여도(희석하여도) 세균이 피지는(번식) 활동을 막아낼 수 있을만한 강력히 썩지 않게 하는 성질을(방부성을) 가지고 있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세균을 바로(직접) 죽여 없애(살멸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으로(작용으로) 세균의 움직임을(활동력을) 부숩(파괴시켜줄)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해(즉)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많은 양의(다량의) 산소로(로써) 세균을 태워 버리거나 또 다른 모양의(유형의)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산소를 주지 않고 세균을 숨 막히게 해서 죽여(질식사켜) 버린다. 그러면 피(혈액) 속의 백혈구가 세균들을 간단히 없애주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의학(용)으로 널리 쓰이고(이용되고) 있고(있으며) 병 고치는데(치료에) 있어서는 설파제보다 훨씬(훨등) 안전하고 효

능이 있다. 설파제는 이따금(간혹) 몸속의(체내의) 어떤 기관에 해로움을(유해로움을) 주지만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없다. 때문에 이 새로운 발견으로 그 쓰임(이용) 폭이 넓어졌으며 지금(현재)은 암을 고치는데(치료에) 특효약으로도(오로서도) 연구되어지고 있고(있으며) 실험결과는 희망이 있다(유망시 되고 있다) 한다.

목숨(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는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가장 질이 좋은 것이라야 될 것이다. 때문에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많은 양을 만들기(대량제조를) 위해 쓰이고 있는 옥수수도 그 기르는(재배) 과정에서 강력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물질 비료만 써서(만에 의해서) 길러(재배되어) 진다면 모체인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에서 내보내는(분비되는)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더욱 좋은 품질이(양질의 것이) 되고 생산도 많아질 것이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 분야에서(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세계에(세계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에노크 씨

와 윌스 타이나 씨 두 의사는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를 주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모체인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 그 본디 바탕을(자체를) 몸속에(체내에) 넣어 일으키는(작용시키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효능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가 내보내는(분비되는) 물질에 대한 인공(적)으로 가치가 같은 물건을(동가물을) 화학(적)으로 합해서(합성하여) 본래의 곰팡이를 무시(도외시) 해버리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더욱 연구를 복돋아(장려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안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생물학(적) 유기(적) 물질이다. 화학자로서 목숨(생명)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다.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안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에서(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진 감동스러운(감동적인) 성과는 많은 의학 연구가들에게 또 다른 힘(토양)미생물을 깊이 연구하게(고찰하게) 하는 자극이 되고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맨 처음으로(최초로) 알려진(발견되어진) 하

나가 흙(토양)세균에서 뽑아낸(추출한) 약제 ‘그라민데인’이다. 그 효능은 설과제의 1,000배에서 10만배의 사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흙(토양)세균에서 뽑은(추출된) 것이 다친 사람들의 의(부상자들의) 낫는데(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로스리신’이다. ‘지로스리신’은 자연의 살균제이며 유탄리(특히) 폐염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과 지프테리아균과 같은 그램(g), 양성균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

의학계는 지금 흙(토양)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발견하는)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농사꾼들(농민들)에게 남은(남겨진)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의학계가 놀라운(경이적인) 성공 속에서 받아들인 흙(토양) 미생물 그 본디 바탕이(자체가) 병을 일으키는(유발하는) 병원균의 움직임을(활동을) 억누르고(억제하고) 흙(토양) 본바탕에서(자체에서) 짜임새 있고(정연하고) 놀라운(경이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깊이 연구하는(고찰하는) 것이다. 흙(토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파상풍과 장티푸스와 같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와 같은 곰팡이에 서(에 의해) 아무런 해로움이 없는(무해)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이밖에 많은 흙(토양)세균은 서로 서로 돕고(상부상조하고) 더불어 살며(공생하며) 많은 식물들에게 해롭고(유해하고) 자잘한(미시적인) 흙(토양)동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균류가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기를(예를) 들면 선충을 잡아먹는 종류의 균들은 그 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끈끈하게 달라붙는 물을(점착물) 내보내고(분비되고) 허우적거리는 선충을 먹어 치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흙(토양)세균들은 흙(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병해충을 먹어 치우기도 하고 퍼져나가는 것을(번식을) 억누르기도(억제하기도) 하며 나아가 의학약품을 만드는 쪽(제조면)에도(에서까지의) 큰 역할을 견뎌내주고(감당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농사짓는(농경) 과정에서 초

산가리 형태의 질소를 쓰거나(사용하거나) 석회와 인산 따위(등)를 넣어(투입하여) 흙(토양)미생물이 가진 서로의 힘을(상호작용을) 흔트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미생물이 피지는(변식이) 움직임이(활동이) 방해되고 균형이 부서져(파괴되어) 버린다.

하워드 씨는 동물들의 병을 고쳐주는 흙(토양)의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끼 돼지는 백리(장염의 한 가지)에 걸리기 쉽다. 이는 많이 썩은(부식이 많은) 흙(토양)의 잔디 흙을 먹이면서(먹이므로서) 나을(치료할) 수 있다. 질소 인산가리 들(등)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사용하여) 가꾼(경작한) 흙(토양)의 잔디 흙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 같은 독이 든 약제를(독제물) 줄곧(계속) 많이 쓰고(사용하고) 있는 땅(지대)에서는 들새와 벌레(곤충)들이 빠르게(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흙(토양)이 더러워졌기(오염되어졌기) 때문이다. 들새들은 흙을 뒤적여 벌레(곤충)와 그 애벌레를 주워 먹고 산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쓰게(과용하게) 되고 나뉘이지 않은(미분해된) 똥과 똥짚으로 만든 퇴비(퇴구비물) 써왔기(사용해왔기) 때문에 흙(토양)이 산성화되고 잘 썩지 않아져서(부식이 낮아져) 산성화된 흙(토양)을 싫어하는 들새들은 푸른 잎이 우거진 숲(녹음)을 찾아 날아 가버리고 만다.

농사꾼들(농민들)은 스스로 흙(토양)을 산성화시켜 해충과(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천적을 잃게 되어 더욱 많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미국 농무성의 과학자들은 흙(토양)미생물이 사람(인간)의 병을 고쳐(치료시켜) 주는 뛰어난 힘을(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물의 병해를 몰아 없애기(구제하기) 위한 실험을 흙(토양)미생물에 관한 것에서(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아리조나 대학에서는 커다란(대형의) 선인장(사보텐) 숲을 망치고 있는 무서운 부패병을 몰리칠(퇴치할) 수가 있었다. 푸른(페니실리움) 곰팡이는 식물병원성 세균이 널리 퍼지는 것을(반연을) 막고 풍경을 보호해냈다고 한다.

흙(토양)의 미생물 모입에는(집단에는) +정(正)과 -부(負)의 두 요소 사이에서 복잡하게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하는 관계가(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즉) 흙(토양)상태가 좋을 때에는 생물은 어느 테두리 안에 모두 끌어 넣은(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일으킨다(작용한다). +정 같은 좋은(유익한) 미생물이 -부의 미생물을 쳐 들어가는(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흙(토양)의 바른 상태가 어떠한 때려 부수는(파괴적) 힘을(작용을) 받게 되면 병리(적) 요소가 세력을 펴게 되어 식물과 곡식(작물)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학약품에만 기대(의존해) 온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흙(토양) 미생물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들(인식해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흙(토양)미생물을 주축으로 하여 연구해 나가기 위하여 의학과 농학이 서로 도와(제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같이 놀라운(경이적인) 역할을 해주는 세균과 균류에 대하여 더 앞장서서(적극적으로) 연구를 떠나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사람에(인간에) 대한 병리학과 식물에 대한 병리학의(과의) 구별 없이 한데 묶어(종합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어야 농업과 일반 사람들의(공중) 보건이 온전히 지켜나 갈(보전되어질) 것으로 안다. 우리의 농업은 신기하고(신묘하고) 기적처럼(기적적으로) 일으켜주고(작용해주고) 있는 흙(토양)미생물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이용 가능성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흙(토양)을 하나의 기계인양, 물질인양 여기고(취급) 이끌어 나가고(경영하고) 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 알

##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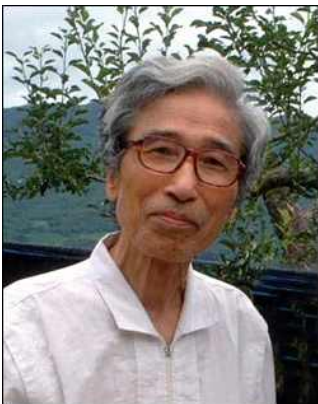
## 니

## 다

\* 오늘날 영어 마구 쓰기로 우리 말글살이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2021년 우리말 지킴이와 해살꾼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해마다 한글날에 “우리말 지킴이와 해살꾼”을 뽑아 발표합니다. 지난날 우리 말을 살리려고 애쓴 분이나 모임, 우리 말을 못살게 한 사람이나 모임, 또는 공공기관을 9월 30일까지 이대로 공동대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 우리 말에 관한 글을 쓰신 회원분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편지로 보내주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글로 소식을 전해주신다면 감사히 실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에 열린 이오덕 선생님의 17주기 추모식에는 그래도 거리두기 시작 전에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기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는데, 벌써 18주기 추모일이 다가옵니다. 정말 올해는 누구도 추모식에 오르지 못합니다. 멀리 있지만 이오덕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회계 보고 (8월호)

06 / 18 이정호 6천원  
 06 / 25 이재팔 2만원  
 06 / 29 정유철 5만원  
 07 / 01 남원석 1만원  
 07 / 01 김시우 5만5천원  
 07 / 01 임관혁 1만원  
 07 / 04 박준범 2만2천원  
 07 / 07 김진문 5만원  
 07 / 20 이정호 6천원  
 07 / 26 이재팔 2만원  
 07 / 30 김익승 2만2천원  
 08 / 02 남원석 1만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에 3,700원씩(130부+우편)

회비 만드는데 든 돈 = 481,000

들어온 돈 = 281,000

\* 646,000(6월호) + 200,000(8월호) = 846,000원 부족합니다.

##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입금계좌 : 우체국 300731-01-001609

예 금 주 : 이정우 (이오덕학교)

\* 1권에 3,700원. 1년에 6부가 나옵니다. \*

회보 구독료 : 1년마다 22,000원입니다.

누리집(홈페이지) : <http://cafe.daum.net/malel>



우리말  
우리열

제  
118  
호

2  
0  
2  
1  
년

8  
월  
호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